**금주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심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주안에서 평안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22-23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www.chpress.net | 주후 2023년 8월 26일 (토) 제 1934 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 CT, 하와이 여왕이 최초로 기독교를 전파했던 마우이섬의 화재

## 화재로 피해를 본 교회들, 여전히 잿더미 속에서 서로 섬겨
## 라하이나, 마우이 최초의 교회와 신학교가 있었던 하와이 왕국의 옛 수도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화재로 기억되는 마우이섬에서 발생한 최악의 재난의 여파로 마우이의 기독교인들은 주일 아침에 모여 기도를 드리고 계속해서 구호활동을 진행하며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을 애도했다.

Grace Bible Church Maui의 Jonavan Asato 목사는 파멸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비유했다. "그 마을과 그곳에서 가졌던 추억을 보면 그냥 집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 그것은 우리 문화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우리 섬의 일부입니다."

얼마 전 그의 교회는 이전 하와이 왕국의 수도이자 200년 마우이 선교 역사의 랜드마크이자 하와이 서부를 황폐화시킨 덤불 화재의 직접적인 피해 장소인 라하이나로 배를 통해 보급품을 보냈다. 그을린 자동차, Front Street의 불씨, 불탄 2,000개 이상의 건물에서 흩어지는 연기를 목격한 Asato 목사는 성도들에게 일어나 예수의 이름을 들고, 라하이나로 향할 것을 요청했다.

라하이나에서는 지역 기독교인들이 광범위한 피해와 씨름하고 있다. Lahaina Baptist Church의 지도자들은 주변의 모든 것이 "말 그대로 잿더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회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고 전했다. Barry Campbell 목사는 " 저는 우리 지역 사회 주민의 절반 이상이 집과 소유물을 잃었다고 추정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재건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호텔과 리조트가 문을 닫으면 현지인들은 어디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마우이의 성도들은 96명이 사망하고 재건하는 데 50억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는 재난의 희생자 수천 명을 돌보기 위해 최전선에 서 있었다. 그들은 교회를 기부 센터로 탈바꿈시켰고, 수백 가지의 따뜻한 식사를 요리했으며, 땅과 물을 가로질러 발전기, 가스, 음식들을 전달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기부와 기도를 바쳤지만, 손실의 범위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가 처음 마우이에 전해졌던 곳 주변에 집중된 현지인들이다.

와이에후 커뮤니티 교회(Waiehu Community Church)의 록키 코마츠(Rocky Komatsu) 목사는 "하와이 원주민에게 많은 문화적, 역사적 의미가 있는 유서 깊은 도시"라고 말했다 . "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관광도시로 이야기하지만 하와이 원주민 커뮤니티에 매우 중요합니다."

케오푸올라니(Keōpūolani) 여왕은 하와이 제도를 통합한 통치자인 카메하메하 왕과 결혼하여 1823년 라하이나로 이주했을 때 섬에 신앙을 전파한 두 명의 미국인 선교사를 초대했다. 미국인 William Richards와 Charles Stewart는 Keōpūolani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했으며, 그녀는 그해 후반에 사망하기 직전에 개종했다.

하와이 선교 역사 전문가인 크리스 쿡(Chris Cook)은 호놀룰루 다음으로 "라하이나에는 하와이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로 완벽한 역사적인 하와이 기독교 유적지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3면으로 계속〉

# '일과 삶의 균형' 신화의 허구

지금까지 받은 일과 삶의 균형을 잡으라는 조언 중 최고는 어떤 것인가?

많은 사람이 과로에 시달리고 새로운 업무와 집안일 사이를 곡예를 하듯 오가며 해내야 하는 오늘날의 직업 환경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잡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가 30년이 넘게 직장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은 일과 삶의 균형은 그저 신화일 뿐이라는 것이다. "균형"은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지만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은 삶의 반대 개념이 아니다. 일은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삶의 필수 요소이다. 적어도 그렇게 여겨야 할 영역이다. 따라서 일과 삶의 균형은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려고 애쓰는 대신에 '중심'을 추구하기로 했다. 나는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삶의 다른 부분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내가 이렇게 결심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의 중심이시다. 만물의 주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성경과 이 세상의 주역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이 삶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닫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삶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삶의 우선순위들을 계발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다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나의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맞추기 위해 내가 실천하는 몇 가지 방법이다.

1.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의 성취임을 이해해야 한다.

〈3면으로 계속〉

3면 시론 이동진 목사

4면 푸른초장 박우진 목사

16면 신앙에세이 류응렬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 LILYMD. COM

SBS Sharing Bread for Soul
월드쉐어USA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월드미션대학교 설립자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뜻깊은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기념 학술세미나
8. 17 (목) 오후 4시
월드미션대학교
신선묵: "임동선 목사의 삶과 영성"
최윤정: "WMU 온라인교육과 영성의 방향"

기념관 개관식
9.24 (주일) 오후 7 시
월드미션대학교
임동선 목사 기념관 개관
기념 설교집 및 기념품 증정

기념 음악회
10.21 (토) 오후 7시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목사의 일대기를 다룬 오라토리오 공연

비전 넥스트
11.11 (토) 오후 6시
월드미션대학교
선교후원금 및 장학금 전달식
기념 논문집 및 화보집 출간식
임동선 목사 영상 상영회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213-388-1000 학교 홈페이지(kr.wmu.edu) 참조

WORLD MISSION UNIVERSITY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발행인 칼럼

# 누가 큰가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모든 것이 똑같지 않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이 있다. 그런데 누가 큰가, 내가 큰가, 하나님이 큰가. 한 부자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눅 12:18-20) 누구의 말대로 되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너무 자주 그 자명한 답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다. 부자는 쓸 데 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세상은 자기 말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닌 데. 주권자가 계신데. 그렇다, 사람의 한계는 이 말씀에 잘 담겨 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 27:1)

그리스도인도 다 같지 않다. 똑같은 일생(一生)을 살면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다. 작년에 교단 '목사 장로 기도회'가 덴버에서 있어서 참석했다가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에 있는 네비게이토 선교회(The Navigators) 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다. 펼쳐진 수채화같이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곳에서 도우슨(Dawson)을 만났다. 물론 직접은 아니었다. 그는 네비게이토의 설립자이다. 1933년에 시작된 네비게이토는 복음적인 초교파 개신교 선교단체로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살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강력한 제자로 만들기 위한 농도(濃度) 높은 제자훈련을 하며,, 모든 나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왕국이 확장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일에 처음으로 부름 받은 자가 도우슨 트로트맨이다. 그는 1906년 태어나서 1956년 6월 18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본향으로 갔다. 그는 뉴욕의 한 호수에서 익사 직전에 있던 한 소녀를 구하고 숨을 거둔 것이다. 그의 생애 가운데 영적인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미 한국에서도 익히 들었던 네비게이토의 도우슨을 그 본부에서 그가 거닐었던 길과 머물렀던 건물, 사진과 책 등 여러 흔적과 자료들을 보면서 그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이다. 도우슨을 향하여 빌리 그래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To Daws, God was big and the world was little.(도우에게, 하나님은 컸고 세상은 작았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도 달라진다. 여전히 세상을 너무 크게 보고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본질이 아니고 영원한 실체가 아닌 것들을 묵상하느라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잊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도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 내 경험의 상자 안에 가두어 두려는 불경(不敬)한 시도는 무수히 많다.

21세기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불확실의 시대에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 영광스러운 God-sized의 비전을 갖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절실하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 한 번뿐인 생애를 저 위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불편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질문 같지만 스스로에게 다시 확인해 보자. "정말 누가 큰가?" 응답하라, 2023년 여름의 그대여!

# 왜 가난하면 더 비싸게 살아야 하는가?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비평가들에게서 굉장한 호평을 받은 영화 '양 도살자'(Killer of Sheep, 1978)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왜 더 비싸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이 영화는 1970년대 로스앤젤레스 와츠 구역에 사는 흑인 가족 이야기이다. 그들은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어느 주말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기로 한다. 그런데 와츠 구역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차가 말썽이다. 타이어가 펑크가 나버린 것이다. 예비 타이어도 없다. 어쩔 수 없이 펑크 난 차를 끌고 집으로 되돌아오는 바람에 바퀴 프레임까지 망가져 버린다.

사실 여기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장면을 보면서 가난을 아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가정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 타이어를 장만할 돈도 없는 이 가정이 어떻게 바퀴 프레임이 망가진 차량을 고칠 수 있겠는가? 어쩌면 이 가정은 망가진 차량을 방치하거나 폐차해야 할지도 모른다. 어찌 되었건 이 가정에 더는 차량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질 것이다.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가장 큰 비극은 그들에게는 세상에 있는 것들 대부분이 사치품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다.

소비 평탄화에 관하여 먼저 쓴 글에서 말했던 것처럼, 중하층부터 1퍼센트 최상층까지의 미국인은 대부분 소비의 균형을 가지고 있다. 소비 평탄화란 삶의 수준을 항상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소비와 저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첫 직업부터 은퇴까지 이런 방식의 경제생활을 유지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소비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 전 생애를 아우르는 경제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그들에게는 사치다. 당장 이번 주를 버티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러한 경제적인 위기를 일 년에 여러 번 겪기도 한다. 그렇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 소비, 저축을 보통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이것이 경제적인 계층별로 사람들의 삶에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이다.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의 지출을 생각해보면 음식이나 필수적인 공과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출이 소비의 균형과 연결이 되어 있다. 주택 대출, 차량 대출, 학자금 대출 상환, 신용카드 청구, 보험(차량, 건강), 저축, 연금보험, 교육비 등이 바로 소비의 균형을 위한 것이다. 이처럼 중산층 가구의 소득은 대부분 과거에 소비한 것을 갚거나 미래에 소비할 것에 대비하여 저축하는 용도로 지출이 이루어진다.

중산층 가정은 소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삶을 더 수월하게, 덜 위험하게,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노동자들은 소비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기에 삶이 더욱 어려워진다. 사실 다음에 제시하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네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은 모두 소비의 균형과 연결되어 있다.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가장 큰 비극은 세상에 있는 것들 대부분이 그들에게 사치품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다."***

### 가난한 노동자들이 겪는 네 가지 경제적인 문제

첫 번째이자 가장 분명한 경제적인 문제는 지금 당장 생계를 감당할 만한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유형 1). 두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들의 소득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신용거래를 할 수도 없다(유형 2). 세 번째 문제는 중산층, 고소득층은 장기간의 미래를 내다보며 경제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며 경제를 계획할 수 없다(유형 3). 네 번째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난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더 비싼 비용이 든다는 사실이다(유형 4).

〈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2. July 4. and Nov 25.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기독교서적센타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2 L.A. CA 90006

교회인쇄물 · 헌금봉투 · 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 하와이 여왕이 최초로 기독교를...

〈1면에서 계속〉

"라하이날루나 유적지를 제외한 모든 유적의 손실은 온전한 하와이 선교시대(1820-1863) 구조물에 대한 주 전체 인구 조사에 큰 격차를 남깁니다."

라하이나의 유서 깊은 와이올라 교회가 이제 막 창립 200주년을 맞았다. 교회의 역사는 Richards와 Stewart가 1823년 5월에 조직한 예배로 거슬러 올라간다. 묘지에는 Keōpūolani 여왕을 포함하여 하와이의 알리이 또는 왕족의 일원이 묻혔다. 이전에 Waine ʻ e Church( 와이네이는 하와이어로 "움직이는 물"을 의미하고 Waioli는 "생명의 물"을 의미함)로 알려진 이 교회는 수년 동안 강풍과 화재로 건물이 네 번이나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으며 교회 홀은 화염속에 삼켜졌다.

"우리 교회는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건물은 교체될 수 있습니다."라고 평신도 목사인 Anela Rosa는 USA Today에 말했다 . "우리의 힘은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똑같이 중요한 우리 직원들에게 있습니다."

지난주 화재는 마우이에서 가장 오래된 집인 볼드윈 집에도 이르렀다. 볼드윈 집은 1800년대에 의사 드와이트 볼드윈을 비롯한 미국 선교사들이 살았던 곳이다. 볼드윈은 현지 언어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만큼 하와이어를 잘 배웠으며, 1853년 천연두 발발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우이 주민들을 검역하고 예방 접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라하이나의 유명한 반얀트리는 섬의 기독교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60피트 높이의 이 나무는 1873년 당시 마우이 보안관이자 미국 선교사의 자녀였던 윌리엄 오웬 스미스가 개신교 선교사들이 섬에 도착한 지 50주년을 기념하여 심어졌다.

라하이나 화재는 원래 하와이 최초의 인쇄기가 있던 신학교였던 마을의 고등학교를 살렸다. 쿡에 따르면 이 학교는 하와이 원주민들이 1837년에 처음으로 섬의 역사를 쓰고 출판한 곳이었다. 본토의 사역자들이 섬의 지역 교회들과 나란히 오기 시작했습니다. 앨버커키에 있는 Citizen Church ABQ는 지난주 마우이에 있는 자매 교회가 재난 구호 단체인 Convoy of Hope와 Mercy Chefs를 주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Samaritan's Purse는 이미 군목을 파견했으며 앞으로 수일 내에 사람들이 귀중품과 기념품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해 보급품 위로 날아가고 자원봉사 팀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비전은 물품을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업컨트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푸칼라니 공동체 교회를 통해 기금을 분배하는 것이다. 라하이나에서 동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섬의 이 지역은 이번 산불 상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로 피해를 본 교회들은 여전히 잿더미 속에서 서로 섬기고 있다. Kaanapali Beach Ministry의 Richard Murray 목사와 그의 아내 Betsy는 화재로 집을 잃었다. 교회 웹 사이트는 또한 그들이 모든 라이브 스트리밍 장비를 잃어버렸다고 언급했다.

HNR(Hawaii News Report) 인스타그램 릴은 생명의 말씀 카훌루이에서 노래와 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독교인들을 포착했다. 회중의 약 4분의 1이 라하이나와 주변 지역 출신이다. Charli Abihai 담임목사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위한 수많은 GoFundMe 링크를 공유했다.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며 긍정적으로 모든 피해 상황과 싸워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익명의 한 참석자가 HNR에 말했다. "내가 본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앞에 더 풍성한 생명과 축복이 있음을 압니다."

## '일과 삶의 균형' 신화의 허구...

〈1면에서 계속〉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의를 확보하셨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의 선물에 대한 감사, 사랑 많으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려는 자녀로서 갖는 진실한 소망 가운데서 자유롭게 무엇이든 하면 된다.

따라서 우리는 꾸준히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 잭 밀러가 말했듯이 복음은 한번 듣고 믿은 후에 깊은 묵상에서 비롯한다. 기도와 묵상 가운데서 목적과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적어서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와 보낼지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하길 바란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사업가들이 자신의 직업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일을 돕고 있다." 이는 내가 하는 일이 사업가들이 직장에서 소명을 분별하고 그 소명을 이행하도록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콘퍼런스에서 기업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내가 이끄는 부서의 젊은 전문가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나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단순한 생

### 3. 직장 내 업무가 돌아가는 주기를 파악하고 계획하라.

불가피하게 더 오랜 시간 일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직장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가능하다면 다음에 해야 할 업무까지도 명확하게 해 놓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이들에게 기대기도 하고 우리가 맡게 될 추가적인 책임도 피하면서 직장이 아닌 다른 삶의 영역을 위한 계획도 적절하게 세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일정 기간만 지속해야 한다. 과중해진 업무량은 줄 때도 있어야 하며 휴식과 다른 우선순위를 위한 시간이 끼어들 수도 있어야 한다. 나의 직장이 이러한 시간 리듬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일은 삶의 반대 개념이 아니다. 일은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삶의 필수 요소이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서 비롯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복음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 2. 삶의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하라.

기업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과 그 방법을 압축하여 핵심 가치를 만들고 비전선언문을 세우는 것처럼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은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데 유용하다.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는 일은 기도와 산성보다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핵심 가치를 마음에 새김으로써 해야 할 일 목록을 확인하는 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내가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과 일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 이것은 때로는 내가 계획한 모든 일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때로는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중심에 놓는 삶의 실천으로 나를 이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처음에 언급한 두 가지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수백만 가지 길로 끌려다닐 것이고, 저마다 먼저 해 주길 기다리는 일들 속에서 방향을 잃은 채 힘들어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에 모실 때, 우리는 집중과 쉼을 경험하게 된다.

by Denise Yohn, TGC

## 시 론

#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신앙으로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운동경기는 어느 종목이든 나름의 묘미(妙味)가 있다. 특히 축구의 이른바 극장골이 주는 짜릿함이나 농구경기에서 0점 몇 초를 남겨두고 날아간 3점 슛이 바스켓에 빨려들듯이 들어가 1점차 역전승하는 장면도 관중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하다. 요즘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이 다시 관중들을 열광시키는 가운데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는 어제 경기에서 그랜드 슬램, 만루 홈런을 터뜨리며 한국팬들에게 흥분의 묘미를 선사했다.

스포츠에도 종목이 있듯이, 신앙생활도 종목별 특징처럼 다양하다. 그 다양함이 교단을 만들었고, 교단마다 나름의 신앙 특성을 가지고 승리를 향해 달리도록 돕고 있다. 야구경기에 흠뻑 빠져 식사도 거를 정도인데 축구경기는 재미없어하는 사람도 있고, NBA농구에는 열광하는데 골프는 지루해하는 사람도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매년 열광하는 NFL 수퍼볼 경기가 열리는 날 온 동네가 난리를 쳐도 룰을 모른다고 무심한 한인들의 모습도 있다.

그런데, 때로 정식 스포츠 경기가 아닌 도박이나 내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열정은 정식 스포츠 경기에 대한 팬들의 관심 못지않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라 '쟁취'에 있다는 점이다. 상대방을 짓밟고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려서라도 내가 이익을 얻는 것만이 그들의 목적이다.

신앙생활의 묘미는 무엇일까? 어느 한 종목에 집중하는 열광 팬들은 단순히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승리 여부로 그 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다. 한 선수의 부상 소식에 마음 아파하는가 하면 기대했던 선수의 부진과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전술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반응의 이유는 그 팀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목회데이타연구소'와 '바이블 백신센터'에서 '한국교회 이단 실태'에 대한 통계조사를 지난 8월 4일자로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 기독교 이단 비율이 8.2%, 최대 59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통계가 나타났다. 사실 그동안 교단별로 연구조사들이 없지 않았지만 범 기독교적인 이단과 사이비종교에 대한 실태조사는 처음이 아니었나 싶다. 이번 '2023년 한국교회 이단실태조사'에 대해 연구소측에서는 " 국내 최초로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과학적 조사방법을 통해 이단 비율을 측정하고, 실제 이단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단의 실태와 신앙의식 등을 확인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조사보고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문항들을 만들어 살펴보고 있는데, 눈에 띄는 항목 중의 하나는 목회자들에게만 물어본 항목인 '이단 확산이유'이다. 이 설문에 대해 응답자인 목회자들의 30%가 '교회가 사람들의 종교적 욕구를 못 채워주었기 때문', 그리고 25%가 '교리교육의 부재', 18%가 '구원 확신의 결여'라고 응답했다.

이 통계를 보면서 10여년 전 LA 레이커스의 필 잭슨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떠올랐다. 선수로 2개, 감독으로 11개의 NBA 우승 반지를 보유한 전설과도 같은 필 잭슨 감독이 우승에 우승을 이어가던 레이커스에 대한 관중들의 반응 이유가 이 조사항목의 반응과 흡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 팀은 관중의 승리욕구와 멋진 경기 욕구를 채워주었고, 선수들이 나의 전술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경기에 참여했다."라는 필 잭슨 감독의 인터뷰 내용!

이단이나 사이비 신앙이 아니라 참된 복음 신앙이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필 잭슨 감독의 말과 이번 통계조사보고서를 다시 찬찬히 들여다보기를 바란다.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보여져야 할 것이며, 내면적으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진중한 연구와 방향제시 그리고 땀 흘리는 훈련 등이 아닐까.

이 시대, 세상의 악들과 함께 뛰어야 하는 영적 리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 환호하며 반기는 교회를 이루어내기 위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필 잭슨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목회자 의식, 땀 흘리는 선수들과 같은 성도들이 한마음되어 한 경기 경기마다 관중들을 감동시키면서 마침내 찬란한 영광의 관(스테파노스)으로 빛나는 교회를 이루어내기를 바란다.

djlee7777@gmail.com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 견디면 이깁니다

주일 오후다. 저녁을 먹고 카푸치노를 마시러 나왔다. 코로나 이후 대체로 기계를 이용하여 집에서 커피를 마시지만 가끔은 밖에서 마시고 싶을 때가 있다. 집에서 마시는 것보다 밖에서 마시는 것이 왠지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한다.

오후 8시경 밖을 나왔더니 몇 달 만에 느껴보는 서늘함이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얼마 만인가, 이런 기분이! 더위가 너무 심하여 언제 시원함을 느꼈었는지 기억에서 멀다. 그런데 오늘 이런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고, 고마웠다.

금요일에 로마에 비가 한차례 내렸을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른다. 비가 너무 내려 물난리로 고생한다는 지역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로마에서 내린 비는 그 치열한 더위를 일시적이라도 물러가게 만드는 일이었기에 순간적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 문득 "견디면 이긴다"는 잠언 말씀이 떠올랐다. 힘들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사람이 만나는 고난들은 모두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고난이다.

오늘도 TV에서는 패널들이 나와 기후 이상으로 인한 염려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북극 얼음이 엄청나게 녹아내리고 있어, 바닷물의 증가로 해안에 사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둥, 며칠 전 시칠리아의 카타니아에서는 주먹만 한 우박이 떨어져 자동차들이 망가지고, 밀라노에서는 태풍으로 큰 나무들이 뽑혀 막심한 피해를 주었다는 등등…. 이 모두가 우리에게 불안한 얘기들이다.

그러나 인내하고 견디기만 하면 살아남게 된다. 힘들다고 미리 겁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다. 온 세계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뉴스는 전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나는 더위에 도전할 거야, 더위에 굴복하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힘과 강인함이 주어지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이 시대 겁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러시아가 얼마나 거대한 제국인가! 가늠하기 어려운 땅과 거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석유, 가스 등등…. 거기다가 그들이 소유한 핵무기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거기에 비하면 우크라이나는 너무나 형편없는 나라가 아닌가! 지하자원도 별로 없고 군대도 약하고, 무기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이기에 러시아가 얕볼 수밖에 없던 나라이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정복하고 괴뢰 정부를 세우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자국의 군사 훈련이라고 계속 속이고는 공격을 했다. 우크라이나는 대통령도 연예인 출신이라서 정치에 문외인이라고 깔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항복하지 않고 결사적으로 응전했다.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처럼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만약 대포 한 방 쏘았을 때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했다면 대통령은 일신상은 편했을 것이다. 푸틴의 화려한 별장에서 고급 양주를 마실 수 있었을 테고…. 그러나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항전했고, 그런 항전에 감동한 서방과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죽기를 각오한 항전에 오히려 러시아가 종이호랑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들어내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렇다. 인간은 적응력에 대해서는 천재적 능력을 소유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역사를 이어온 것이다. 고로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곤란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 나는 60년대에 판자촌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다. 무허가 판잣집들을 구청에서 깡패들을 용역으로 보내 때려 부수면 한 시간도 안 되어 복구해 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주어야 했다.

결국 견디는 자가 살아남고 역사를 만들어간다. 오늘 밤은 오랜만에 너무 시원하여 폭염을 견딘 자에게 주는 위로를 느끼게 한다. "견디십시오! 견디는 자가 이겨내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법입니다"라고 온 세상에 외치고 싶다.

chiesadiroma@daum.net

# 푸/른/초/장

박우진 목사
(평창동산교회)

## "주의 장막과 성산에 거하는 자"

### 시편 15:1-5

사자성어 중에 '여신동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과 함께 가다(걷다)'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보시면 성경에서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이분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 분은 성경에 많이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에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에녹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을까요?

창세기 5장 2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의 성막과 성산에 거하는 자는 누구일까〉

제가 오늘 시편 15편을 살펴보는데 먼저 성경 속의 에녹을 소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하는 주제를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이 주제에 관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해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제시한 대답, 그리고 결론적 진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주제를 정교한 구조로 풀어낸 이 시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본 시편의 핵심주제에 관한 질문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로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장막과 성산이라는 장소적 개념에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시인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을지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

시인은 주제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대답을 2절에서 제시합니다.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자는 바로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시인은 이에 대한 세부적인 답을 3절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답들은 부정문 형식(~하지 않는다)과 긍정문 형식(~한다)이 교차되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3절은 부정문 형식입니다. 주의 장막과 성산에 거하는 자들은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4절 전반부는 긍정문의 형식입니다. 주의 장막과 성산에 머무를 자는 망령된 자를 멸시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합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와 5절은 다시 부정문의 형식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않습니다. 이자를 위해 돈을 꾸어 주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마음이 정결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위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의로운 마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아니,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걷는 자〉

혹시 소요리문답 1문답을 아십니까? 제1문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입니다.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더 자세한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걷게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해석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정직과 공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주의 장막과 성산에 머무를 자는 망령된 자를 멸시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않습니다. 이자를 위해 돈을 꾸어 주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견고한 삶을 사는 자〉

시인의 결론적 진술이 보여주는 것처럼 정직과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직과 공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정직과 공의를 행하려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요동치는 세상에서 그를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중요한 질문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시인의 질문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인의 답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자는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이면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자는 주의 장막과 성산에 거하는 자입니다' 역시 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장막에 성산에 거하면서 정직과 공의를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정직과 공의를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 갈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acts1284@daum.net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2세를 위한 교훈

### -십계(十誡)-

이제 정든 교회와 가정을 떠나 새로운 학교가 있는 곳으로 떠나는 2세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훈하였다. "하나님 저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해 쓰임 받는 주의 자녀들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요람이었던 교회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환경에 놓여질지라도, 에스더처럼, 대니얼처럼, 한결같이 항상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지고 좋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순종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 길이 형통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더불어 저들을 위해 열가지 교훈들을 나누어 주었는데,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해 보기를 원한다. 지키고 아니 지키고는 저들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부지런히 저들 귀에 들려지게 하면, 지킬 가능성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어릴 적 동화책을 읽고서, 비가 내리고 청개구리 우는 소리만 들려도, 부모의 유언을 지킨 청개구리를 떠올린 기억을 해보면, 분명히 부모와 선생된 이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의 귓가에 마땅한 교훈을 꾸준히 들리게 할 의무가 있음을 알게 된다. 성가신 가르침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았던가?

#### 1. 교회를 사랑해라.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면 최고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전부가 있는 것이다. 이 시대에 시시하게 중세의 성전론(聖殿論)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면 안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면서 만나고 섬기고 축복을 받게 된다.

#### 2.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한다. 주일을 반드시 지키고,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라.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예배없이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토산(土産)의 썩은 열매를 얻음같이 헛되거나 회개의 거리가 될 따름이다. 지혜의 근본을 막아두고, 지혜를 구하면, 고생만큼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 지킬 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의 길을 책임져 주신다. 시간이 없어도 더욱 부지런할 지혜를 더욱 구하며 기도해라.

#### 3.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이 되지 못하면 복종을 해서라도 그 말씀들을 잘 따라가도록 하여라. 특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5계명의 복을 받게 되듯이, 네가 섬기는 교회의 영적인 부모님과 같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 보아라. 설교가 막히지 않을 것이고, 축복의 문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청년의 싱싱한 지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가로막는 말장난 같은 구정물 댐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너의 모든 지성과 이성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과 네가 섬기는 주의 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해라.

#### 4. 감사의 사람이 되어라.

지금까지 너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남은 생의 여정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일찍 깨닫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앞에 감사함은 당연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부모님과 선생님과 친구와 이웃의 도움에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신다. 다른 교회를 가면, 항상 목사님, 교회 어른들, 밥 주시는 집사님들 모두에게 늘 감사의 표현을 해라. 은혜는 돌에 새기고, 미움은 물에 새긴다는 말은 성경의 반영이다. 배은 망덕(背恩忘德)해서는 오래 성공할 수 없다. 학교생활도 마찬가지이며, 삶의 깊은 원리이기 때문이다.

#### 5. 하나님 앞에 순결하라.

교회와 부모님의 곁을 떠나 타지로 가면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인데, 특히 자유를 빙자한 방종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이성에 대해 순결하기를 바란다.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는 살아보고 결혼하겠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생각이다. 인생의 첫 걸음을 시작도 하기 전에 죄부터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홀로 있지 말고 교회 공동체, 학교 내 선교단체에 열심을 가져 보아라. 스스로 자신을 믿지 마라. 성경은 홀로 있을 때에 더욱 사단의 영적공격이 무성함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 6. 공부를 잘 해라.

학과 공부를 잘 하려고 애를 써라. 공부는 취미생활이 아니다. 반드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점수를 받고자 밤잠 이루지 못하고 몸부림을 칠 때, 공부에 훈련된 좋은 습관이 다른 어떤 일을 할지라도 잘 적용이 되리라 본다. 그 맛을 알고 놓치지 않되, 욕심에 기인한 야망(Ambition)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젼(Vision)이 되도록 기도하며 공부에 집중해라. 하나님은 잘 준비된 자를 쓰신다. 영적으로 먼저 준비하되, 삶의 현장에서도 리더쉽을 가질 수 있도록 실력있는 학생이 되어라.

#### 7. 적선(積善)하여라.

돈을 벌지 않는 학생의 신분이지만, 주변의 약한 친구들을 돕는 데 일정부분 너의 물질을 사용하기 바란다. 어렵겠지만 용돈을 포함한 수입의 10의 1은 하나님께, 그 십일조의 10의 1은 모아서 이웃에게 동료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보아라. 10의 1이 시작할 때는 적어 보이지만, 결코 적지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곤란한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더욱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자기 앞가림만 하는 인생은 결코 리더가 될 수 없다.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에, 섬기는 만큼 너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어떤 이는 5천명분의 식사비를 자신의 한 입에 톡 털어 넣는 이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는 한번에 5천명을 먹이는 이가 있다. 둘 다 대단하지만, 전자는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요, 후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임이 분명하다,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이다. 섬김의 범위를 넓혀 보아라. 너의 넓은 가슴에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 8. 운동시간을 확보해라.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아무리 하고 싶은 공부도, 먹고 싶은 음식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 없다. 나쁜(?)학교와 좋은 학교를 구별하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 나쁜 학교는 학생들이 주로 햄버거와 같은 인스턴트 식품을 입에 물고, 벤치에 누워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좋은 학교는 가보면, 학생들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계절에 관계없이 뛰고 달리고 운동하는 모습들을 본다. 공부할 그릇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걷고 뛰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해라. 성공적인 학교생활의 또 다른 기초가 될 것이다. 병약한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학교생활을 성공할 수 없다. 걷고, 뛰고, 물장구치면서 건강하도록 애를 쓰라. 특히 최소의 수면시간을 꼭 확보해라. 밤잠 이루지 못하고 공부할 때도 있겠으나, 그것이 익숙해지면 장거리를 달려갈 수 없다. 꼭 탈이 나게 된다. 운동과 수면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학교를 시작해라.

#### 9. 친절해라. 잘 웃어라.

친절과 웃음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밀어내는 힘이 있다. 상대방에게 인상을 쓰고 힘센 척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한 사람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잘 웃을 때, 하나님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그를 복의 통로로 사용함을 보게 될 것이다.

#### 10. 찬송하고 기도해라

고요하면 찬송해라. 괴로우면 기도해라. 외로우면 더욱 주를 보아라. 찬송과 기도가 영혼의 힘을 충전시키는 최고의 통로가 된다.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송가는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어내고,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손으로 힘있게 박수를 치며 찬양해라. 소리내어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잠든 네 영혼을 깨우게 될 것이다. 조용히 묵상해본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서, 생각만 많아지고 악해질 따름이다. 말씀과 찬송을 꾸역꾸역 받아 삼켜 먹으면서, 삶의 길을 열어가 보라. 정오의 태양의 빛과 같이 밝고 환한 영혼가운데, 빛되신 주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씰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어떤 분이 기도학교를 가르치면서 관상기도를 해야 보다 차원 높은 기도에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관상기도는 무엇이며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 LA에서 Kim

### 관상기도 비판

**A:** 관상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므로 그것을 배울 필요가 없음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상(觀想)이란 말은 함께라는 뜻의 "Con"과 기독교적 성소를 뜻하는 "templum" 의 합성어로 이해되는 Contemplation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적 관상기도를 일으킨 사람 중의 하나인 토마스 키팅(Thomas Keating)은 "말로 하는 기도는 깊이있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기도나 언어나 심지어 마음속의 심상(Image)을 사용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기도"라는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관상기도는 주 앞에서 이미지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마음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되고 일치가 되게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를 하는 분들은 관상기도는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Centering prayer(향심기도, 중심기도) 라고 말합니다.

인도사람 드 멜로는 묵상법 중에 호흡법을 소개하며 숨을 들이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안에 들어옴을 의식하고 숨을 내쉴 때 자신의 온갖 두려움, 부정적인 느낌을 낸다고 상상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호흡법을 연습하여 나중에는 이렇게 숨을 쉬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런 방식으로 호흡할 수 있게 되기까지 노력하면서 반복 기도를 하는 중에 관상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박노열 목사는 관상기도는 안토니우스 벤네딕토, 동방교회, 천주교회의 이냐시오 예수회, 십자가의 요한 토마스 머틴을 언급하며 관상기도의 전통을 제사하는 자는 트라피스터 수도회의 지도자들인 천주교 인사들이었고 관상기도를 폭넓게 번지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은 한국인에게도 유명한 헨리 나우웬 신부였습니다.

박노열 목사는 관상기도를 비판하면서 1)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분리 2) 지나친 금욕주의 3) 반지성주의 4) 믿음의 공동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뉴에이지를 연구한 마가렛 피스터는 뉴에이지적 명상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했고 드레허(Dreher)는 관상기도의 위험이란 책에서 이것은 기독교적이 아니고 자기 체면이라고 말했습니다. 합동신학교의 이승구 교수는 "우리 이웃의 신학들"이라는 책에서 어떤 것이든지 그 근원적 사상을 파악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유행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모든 것을 근원부터 미루어 살피는 태도가 누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상기도 역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잘못된 유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관상기도를 비판하기를 관상기도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움이 합하여 정화(淨化), 주입(注入), 합일(合一)의 단계로 나아가려는 반-팰라기우스적인 천주교 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상기도는 성경의 원리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려는 개신교인들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의존하여 성령님의 감화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만이 성경적 참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관상기도를 강조하며 이것만이 깊이 들어가는 기도라는 것은 착각이요 자기 체면에 빠지는 것입니다.

##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 국격(國格)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가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시작되면서부터 나라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8월 1일 입영한 세계 각국 4만 3천여 명의 대원들이 터뜨린 불만불평과 함께 다수의 위험요인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대회 첫날부터 온열환자가 속출했고 각종 벌레에 물린 피부병에 화장실과 샤워시설 부족뿐 아니라 바가지 상술까지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대원들을 한국에 보낸 각국 부모들의 염려와 원성이 언론에 소개되면서부터 전혀 준비되지 못한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대원들의 신변위협을 느낀 영국과 미국, 싱가폴이 야영장에서 퇴영하는 초유의 상황으로 몰리면서는 대회진행자체가 존폐위기에 몰렸으며 이에 놀란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면서 가까스로 진정국면으로 전환되었으나 한 번 실추된 신뢰 즉 대한민국의 국격은 치명상을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날씨는 연일 35,6도를 웃돌았고 설상가상으로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올라오면서 허허벌판 간척지에서 대피해야만 하는 위기상황으로 치달았다. 태풍 카눈은 결국 울고 싶은 사람의 뺨을 때린 격이 되어 쉽게 개선될 수 없는 새만금에서 대원전원이 철수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때부터 정부는 팔을 걷어붙였고 기업과 국민들이 전면에 나섰다. 더 이상 조직위나 전북이 주도하는 대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잼버리가 된 것이다. 새만금이라는 한 자리에 펼쳐진 대회장이 아니라 전국 각지로 대원들은 흩어졌고 프로그램도 대원들을 수용한 지자체의 몫이 되어 축소되거나 변경되었다.

대한민국은 경제규모면에서 세계 12위에 올라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각종 세계대회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치러내기도 했다. 그런데 어린 청소년들 수만 명이 운집할 새만금은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못했다. 새만금은 간척지다. 비가 내리고 폭염이 내리쬐는 불확실한 날씨를 대비하기에는 환경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관계자들의 안일한 의식까지 더해져 원활한 대회를 기대한다는 자체가 요행이었다고 한다.

대통령부터 총리, 자치단체와 다수의 기업, 국민들까지 나서서 사태를 수습했고 퇴영식에 이은 K-POP 콘서트로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 그러나 이미 손상된 국격은 회복되지 못했다. 세상인심은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이 흠이 된다. 병을 주고 약을 줘봤자 본전치기는 어림도 없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다. 그럼에도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총기사고는 비일비재하고 거지를 일컫는 홈리스들이 대도시 중심을 차지하여 악취를 풍기는 것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하와이 섬에서 일어난 대형화재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소방인력과 치안의 부재를 지적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미국의 국격이라는 뉴스는 등장하지 않는다.

국격이 무엇일까? 최소한 잘살고 못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다.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정도가 가까울 듯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국격은 의문이 많다. 그 중에도 정치인들의 국격은 수준 이하다.

잼버리 사태를 두고도 여야는 협력하지 않았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다. 거기에 서로의 진영에 책임을 전가하며 입씨름을 쉬지 않았다. 잘잘못은 나중에 따져도 된다. 손님들 그것도 미래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157개국 청소년 수만 명을 초대해 놓고 집안싸움으로 자중지란만 이어갔다. 그러니 수준 이하라는 것이다.

유명 가수들의 팬클럽은 왜 우리 가수들에게 망한 대회의 뒤치다꺼리를 시키느냐며 삿대질을 했다고 한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국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결코 뒤치다꺼리나 허드렛일이 아닐 것이다. 아쉬움은 그 유명한 가수가 나서서 팬클럽의 불만을 설득하고 자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다.

국격은 꼭 남들이 부여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스스로 쟁취하여 지켜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자식과 같은 잼버리 대원들에게 시원하게 얼린 물병으로 마음을 전하며 응원하는 국민들, 대원들을 태운 수백 대의 버스가 지나갈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손을 흔들어 응원하는 국민들, 한국의 전통과 음식, 문화와 비전을 하나라도 더 전하고 보여주기 위해 애를 쓴 이들이 곧 국격이 아닐까 싶다.

장맛비가 쏟아져 도로가 침수될 때 가던 길을 멈추고 하수구의 오물을 걷어낸 이가 있었다. 물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며 손을 내밀어 구출한 이도 있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보고 앞뒤 가리지 않고 물속에 뛰어드는 이도 있고 불속을 뛰어다니며 문을 두드려 사람들을 대피시킨 이도 있었다. 이런 이들이 국격이 아니겠는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요15:13)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남을 위하여 나를 참는 마음 그것이 곧 국격일 것이다.

hanmackim@hanmail.net

##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 기독교 메시지 품은 영화 흥행몰이 왜…

인신매매에 희생된 어린이 수백만명의 자유를 촉구한 영화 '자유의 소리'(Sound of Freedom·감독 알레한드로 고메즈 몬테베르드)가 미국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영화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13일 미국 영화 통계사이트 박스오피스모조에 따르면 자유의 소리는 지난 11일 영화 '인시디어스: 빨간 문'과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2852개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는 4500만 달러(약 572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영화 '인시디어스'와 '인디아나 존스'가 각각 3188개와 4600개 극장에서 상영된 것을 고려하면 기록적인 수치다.

영화는 아동 인신매매범으로부터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실존 인물인 팀 발라드의 이야기를 담았다. 팀 발라드는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11년 근무한 전직 연방요원이자 현재는 반인신매매 운동가다. 영화는 아이들을 구출하는 과정 등을 풀어내며 인신매매 범죄의 극악성을 알린다.

팀 발라드 역을 맡은 배우 짐 커비즐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교인은 하나님보다 악을 더 두려워한다"면서 "이번 연기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에선 기독교 메시지를 담거나 성경을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올 초 개봉된 기독영화 '예수 혁명(Jesus Revolution)'은 영화계에서 예상 수익인 600만 달러(약 76억원)의 9배 가까운 5300만 달러(약 674억원)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아마존프라임 베스트셀러 차트 1위를 기록한 예수 혁명은 오는 31일 넷플릭스에 공개될 예정이다.

미국이 기독영화 등의 콘텐츠에 호응하는 이유는 뭘까. 성현 필름포럼 대표는 "팬데믹을 지나 더 혼란스러워진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 불확실성을 갖게 됐다"며 "이들은 믿음의 확신을 구하며 신앙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기독교 콘텐츠를 찾았고 이런 소비자 니즈는 영화 흥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 선한 기도로 감동을 준 열아홉 테니스 스타

19살 미국 테니스 스타의 선한 기도가 많은 이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지는 냉혹한 프로 세계에서 "최고의 기량을 내게 해달라"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는 식이 아닌 '저와 제 상대 선수를 안전하게 해달라'고 상대 선수마저 생각하는 선한 뜻을 담은 기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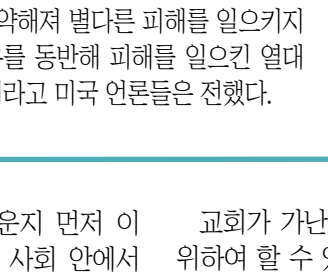
코코 가우프(오른쪽)는 지난 6일 미국 워싱턴DC 록크릭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P) 투어 무바달라 시티오픈(WTA 500) 여자 단식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이번 결과는 가우프가 데뷔 후 거둔 가장 큰 규모 대회 우승이자 이 대회 최연소 우승자라는 쾌거이기도 했다.

미 기독교매체 크리스천포스트(CP)는 가우프가 이번 우승 후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과 교회 식구에게 돌렸다고 7일 보도했다. 그는 "먼저 우승 결과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를 올린다"며 "지난달 열린 윔블던 대회 1회전에서 패한 뒤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교회 식구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이 있었다. 하나님과 저를 지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가우프는 과거에도 스포츠 선수로서 신앙심을 자랑스럽게 드러냈다. 특히 8살 때부터 매번 경기 전에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아버지와 함께 드린다고 고백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뉴욕타임스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결과에 대해 기도를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얘기하며 자신의 기도 내용을 공개했다.

가우프는 15살이던 2019년 영국 런던 윔블던에서 열린 여자 단식에서 본선 1회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이자 테니스계 전설인 비너스 윌리엄스(미국)를 꺾어 주목을 받았다.

### 캘리포니아서 보기 드문 열대성 폭풍… 84년 만 강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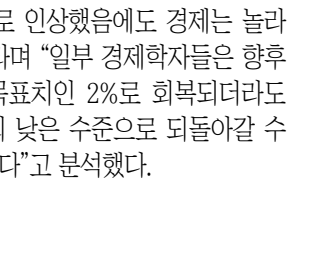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보기 드문 열대성 폭풍이 84년 만에 이 지역을 강타해 홍수와 정전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미 기상청(NWS) 국립허리케인센터에 따르면 열대성 폭풍 '힐러리(Hilary)'가 이날 오후 캘리포니아주에 상륙해 로스앤젤레스(LA)와 벤추라 카운티 등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정전이 발생했다. 미국 정전현황 집계사이트 파워아우티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으로 LA 카운티의 2만3346가구,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6842가구에 전기가 끊긴 상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LA 교육구와 샌디에이고 교육구는 21일 수업을 취소했다. 샌디에이고, 라스베이거스, LA에서는 항공 수백편이 취소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주 대부분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LA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폭풍으로 인한 부상자나 큰 피해 보고는 없었으나 물이 범람했다는 신고가 12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 인타운의 한 아파트 지붕 일부가 무너졌다는 주민 신고도 접수됐다고 전했다. 국립허리케인센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 열대성 폭풍이 상륙한 것은 1997년 '노라' 이후 26년 만이다. 다만 97년 노라는 상륙하면서 세력이 약해져 별다른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해 피해를 일으킨 열대성 폭풍은 84년 만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힐러리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팜스프링스에서 동쪽으로 약 40㎞ 떨어진 지점을 지나고 있다. 팜스프링스는 LA에서 동쪽으로 210㎞ 떨어진 사막 휴양지다.

### 美 국채 금리 금융위기 직전 수준 재상승… '고금리가 뉴노멀'



미국 국채 금리가 또다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선물 시장 투자자들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전망을 내년 중반 이후로까지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경제 여건 변화로 고금리가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21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 투자자들은 연준이 2024년 5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을 35.7%로 예측했다. 내년 5월에도 현재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확률은 31.1%였다. 한 달 전에는 내년 3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본 투자자들이 다수였다. 올해 연말 금리인하 전망은 4%에 불과했다. 미국 소비와 고용, 경제성장률 등 주요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조기 금리 인하 주장은 사라지고, 연준이 현재 수준의 고금리를 예상보다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은 국채시장을 흔들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날 장중 4.354%까지 치솟았다. 10년물 금리는 지난 17일 4.3%를 돌파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나흘 만에 다시 이를 뛰어넘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10년물 실질금리 역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를 넘었다.

고금리 시대가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금리를 22년 만에 최고치로 인상했음에도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탄력적"이라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향후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로 회복되더라도 금리가 2020년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분석했다.

### 왜 가난하면 더 비싸게 살아야…

〈2면에서 계속〉

이 네 가지 요소가 가난한 노동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보겠다. 톰은 시골에서 2008년식 닷지 네온 자동차로 출퇴근하면서 최저시급을 받는 가난한 노동자이다. 많이 노후한 그의 차는 엔진에도 고칠 데가 한두 곳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톰에게는 차량을 수리할 비용이 없다(유형 1).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량이 고장이 났고, 수리비가 500달러나 나왔다(그의 월급의 40퍼센트다). 게다가 그는 낮은 임금과 체납 이력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고 그래서 당연히 통상적인 금리로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유형 2).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톰은 대부업체에 손을 벌려야 한다. 두 주간 100달러를 빌리는데 이자 비용만 15-30달러가 드는 데다. 톰이 이자 비용으로 30달러를 지출해야 한다면, 2주 후에 갚아야 할 비용은 650달러다. 연이율로 계산하면 782.14퍼센트에 해당한다(유형 4). 톰은 지금 당장 500달러도 감당할 수 없으니, 당연히 2주 후에 돌아올 650달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유형 2, 유형 3).

대부업체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다면, 톰은 차를 고치지 못할 것이다. 차를 수리하지 못하면, 직장에 가지 못한다. 직장에 가지 못하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톰이 왜 그런 상황에 놓였는지 질문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그의 잘못들을 책망할 수도 있다. 학교 다닐 때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더 나은 직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전기세를 연체하지 않았더라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개인적인 잘못들과 그가 어찌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이 결합하여 그에게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톰을 비난하기 전에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우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 우리 사회 안에서 한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

사람들은 가난에 대하여 논하면서 너무 거시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실업률이나 복지 정책 같은 거대담론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의 삶의 측면에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비싼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더욱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그리스도인이 개인으로나 교회로서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은 많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생각해보자면, 그들을 위하여 긴급 지원 대출 기금을 만들 수도 있다. 형편이 넉넉한 성도가 사랑의 마음으로 출자하여 지금 당장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대출 기금을 만들 수 있다. 그러한 자금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순환이 되고, 출자금이 많이 모이면 다시 처음 출자한 성도에게 초기 자금을 상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이런 자금은 무이자로 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부채를 탕감할 수도 있어야 한다.)

미국의 교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앞다투어 시행한다면 교회 안에서 가난 때문에 파산하고, 사채를 쫓아다니고, 빚의 노예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라(엡 4:28)는 명령은 그들이 먹을 만한 음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자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지금 당장 직면한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도록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경제적인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구제가 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소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다.

by Joe Carter, TGC

#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28)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X. 종말론 (4)**

F. 지옥 (2)

제칠일 안식교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불신자들의 사후 의식 상태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부인한다. 이들은 불신자들은 사후에 "무존재 상태" (they no longer exist) 라고 주장한다. 즉 영혼소멸설, 혹은 영혼 멸절설(annihilationism)을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악인들은 얼마동안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존재 상태로 만든다고 한다.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1) 빌립보서 3:19; 살전 5:3; 살후 1:9; 벧후 3:7에 나오는 "멸망" (destruction) 이라는 단어를 지적한다; 그리고 2)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이 의식 상태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모순 (inconsistency)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3) 현세에서 행한 죄와 영원한 형벌사이에는 불균형 (disproportion)이 있다고하며; 나아가서 4) 하나님의 우주에 악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지옥의 존재)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주의 완전성에 위배된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은 1) "멸망" 의 구절들은 반드시 존재의 중단(cessation of existence)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항상 무존재 (non-existence) 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문맥들을 살펴보면 "멸망" 이라는 표현은 불신자들이 당하게 될 심판의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다. 2) 만약 악한자들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없을 것이다. 3) 현세에서 행하는 죄의 크고 중함은 우리가 판단 할 영역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 4) 처벌되지 않은 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은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서 불신자들이 당하는 영원한 심판은 의식상태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지옥의 교리를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상식으로 이해하지 말아야한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한다. 오직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곧 진리요 생명이다. 물론 우리 인간의 생각과 논리와 상식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논리와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한다. 이것이 곧 믿음이다.

요한 계시록 19장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임을 가르쳐준다. 19:1.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3.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4. 또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G. 천국

최후 심판후에 신자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존전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산다 (계 22:3-5).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 복된 장소 일것이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천사들과 생물들, 그리고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원토록 성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곳이다.

최후의 심판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갈 천국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장소이다 (Heaven is a place, not just a state of mind). 복음주의 신학자인 도날드 거쓰리 (Donald Guthrie)는 그의 책 신약신학 (New Testament Theology, p. 880)에서 "바울은 천국을 장소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Paul does not think of heaven as a place, but thinks of it in terms of the presence of God, New Testament Theology p. 880)고 주장한다. 그러나 천국은 상태뿐만 아니라, 장소를 의미한다.

성경은 천국이 특정한 장소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준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때에 특정한 장소로 올라 가셨음을 말한다 (행 1:9; 눅 24:51).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을 살펴보면 (행 7:55-56), 스데반이 단순히 어떤 존재의 상태의 상징을 본 것이 아니다 (He did not see mere symbols of a state of existence). 우주의 어떤 공간에 존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 자세한 내용들은 그루뎀의 조직신학 15장을 참고할 것).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천국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계신다.

그리고 요 14:2,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볼때도 천국은 상태가 아니라 특별한 장소이다. 그러나 그 장소가 어디인지, 어떠한 장소인지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 만큼은 알 수 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 외에는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제한적으로 가르쳐주시는 것도 모두 우리를 위함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보다 천국은 훨씬 복된 처소일 것이다. 인간의 언어와 묘사의 한계를 벗어나는 영광의 나라 일 것이다.

계시록 21, 22장을 보면, 천국은 거룩한 성 (21:2)이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곳"(21:4)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게 될것이며,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은" (21:11) 도성이며, 그 치수는 엄청나게 광대한 곳이다 (21:16). 그리고 천국은 여러 색깔의 보석들로 되어있다 (21:18-21). 거기에는 악이 없다 (21:27).

천국에는 너무나 큰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욱 복된 것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구약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일, ( 시 27: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소원했는데, 그 소원이 천국에서 다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찌로다"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지낼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다. 그 때를 위하여 지금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담대하게 인내로서 달려야한다.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을 애독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호에는 '청교도들의 언약 신학(Covenant Theology)'을 연재하겠습니다.

KHL0206@gmail.com

**하나님께서 천국을 제한적으로 가르쳐주시는 것도 모두 우리를 위함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천국은 훨씬 복된 처소일 것이다.
인간의 언어와 묘사의 한계를 벗어나는 영광의 나라일 것이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1부예배:오전 8:30
주일2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 11:00
새 벽 기도 회: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213)381-2202, www.mpcl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 오전 11:00
E M 예배 : 오전 11:00
금요예배: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213) 388-1927 / www.wmcla.com /worldmissionchurch9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a-Rang Church)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탐구예배: 오후 6:30
Tel:(310)749-4756
실비치 리저월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Tel.(323)737-3009, Cell.(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오전10시오후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리더
사 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크 사역
www.elpistamily.org Tel.(213)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714)446-6200, www.gra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 M 예 배: 오전9:45 (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 요 예 배: 오후8:00 (본당)
새 벽 예 배: (월-토) 오전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예배: 오전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모임: "어성경이 읽어지네"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 죤 오웬(John Owen)의 기도에서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 명상기도의 형식의 본질과 사역에 대한 간단한 질문

**[오웬의 머리말] (3)**

4. 예배에 사용되는 형식화된 기도문들에 포함된 어리석은 요소들 (2)

5) 복음적인 예배의 순수성을 빼앗겼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이 복음적인 예배의 순수성, 단순성과 경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을 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으로부터 복음적인 예배를 빼앗아 가도록 고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목회사역이 그것들에 의해 부패되고 파괴되었다. 이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과 형식적인 기도문들을 읽는 것들이 가진 잘못된 요소들 때문일 뿐 아니라, 아무리 이를 행하는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하더라도 결국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6) 은혜와 간구의 영 대신에 다양한 의식을 만들게 하였다

전적으로 은혜와 간구의 영을 상실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도우심을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자신들의 마음으로 경험하는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이런 겉치레들을 통해 자신들의 죽은 행실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시체와 같은 그들의 형식적인 기도는 마치 통나무를 깎아서 만든 우상이 경배하는 신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처럼, 기도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도의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우상들을 만든다. 왜냐하면 그들은 뜻도 제대로 모르는 형식적인 기도문을 읽는 것만으로는 청중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식을 만들어 청중들에게 헌신과 예배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옛날의 성전 예배 의식들에 비하면 그 아름다움과 영광, 질서에 있어서 비교조차 될 수 없다. 이는 사도가 '성령의 사역'으로 명확히 선언한 복음적인 예배의 참된 영광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예배에서 빌려온 것들보다 못한 것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 안에는 올바른 기도 안에 있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같은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열망의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겉치레로 자신들의 성전이나 혹은 기도처 안에다 십자가나 형상들, 다양한 재단들 뿐 아니라, 향이나 끈이나 천 혹은 여러 집기들로 장식해 놓는 것이다.

7) 기독교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게 되었다

기독교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킨 이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형식적인 기도문들에 의해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고백하는 교리들과 더불어 형식적인 기도문들이 사용되는 곳이면 여지없이 그런 의식들이 함께 행해졌다. 교회의 예배가 형식화된 기도문들에 의해 국한된다면 그런 의식들을 필연적으로 행해질 것이다. 그런 형식화된 기도문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자유로운 기도로 예배드린다면,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은 대중 예배에서 형식적인 기도문을 사용한 것 자체를 불법으로 선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단지 기도문들을 남용함으로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의 사용을 권유할 필요성조차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8) 형식적인 기도문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처벌하게 되었다

이 기도문을 사용하는 데서 생긴 악이 또 있다. 교회 지도자들이 사람이 만든 형식적인 기도문들을 예배와 모든 공적인 모임에서 사용하였으나, 얼마 지나자 이것들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 아래 있는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관습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마침내 성직자나 시민을 합법적으로 벌하기로 결정했다. 처음 2-3세기 동안에는 어느 교회에서도 이런 형식화된 기도문들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그 후에 그것들이 서서히 사용되어지다가 법제화되었다. 그래서 오직 자신들이 제시한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교회에 강요한 것은 로마 가톨릭 교황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들은 교회의 회의의 충고나 전통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과 권위에 의해 이것들을 강요했다. 처음에는 이것들의 유익을 강조했으나, 점점 더 발전하면서 자신들의 교권으로 강요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후에 그들은 기도문들과 더불어 두 개의 우상, 곧 화체설과 피를 흘리지 않는 희생의 미사를 강요하게 되었다. 완전히 제도화된 기도를 받아들이도록 교회에서 강요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반대하며 순교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사탄의 손에 사용되어 그리스도의 종들을 파괴시킨 형식적인 기도문들이 어떤 종류의 것들인지 살펴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만일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편을 부르고, 세례와 주의 만찬과 같은 성례를 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 모두가 자신들이 받은 능력과 영적인 은사에 따라 기도했다면, 이와 정반대되는 형식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끼친 수많은 해악들에 대해서 상상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따르는 모든 불편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참된 교회들 안에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와 교제에 의해 예방되었거나 해결되었을 것이다.

9) 영적이며 목회적인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런 형식적인 기도문 사용은 영적이며 목회적인 은사들을 교회 안에서 사라지도록 만든다.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에 유익을 주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그것들이 계속 사용되지 않는다면 소멸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은사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고 있다. 형식적인 기도의 사용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억제되거나 배제된다면 그런 은사들은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질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로 평가될 것이다. 공적인 모임을 책임 맡도록 부름받은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못해서 교회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교회의 영광과 거룩함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는 기록을 볼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맡은 양 떼를 위해 받은 성령과 은혜와 은사를 따라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면서, 자신들이 평안하다는 것으로 만족했을 뿐이다.

younsuklee@hotmail.com

## 한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20)

## '좋은 곳' 에 있었으면…

한부모 모임에는, 이혼자가 다수를 차지하긴 하지만 사별로 혼자되신 분들도 10% 미만 정도 있습니다. 얼마 전 배우자를 떠나보내신 분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남을 여러 모양으로 돕는 일에 몰입하면서 그 아픔을 잊으려 하는 게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주위의 식구나 친구가 거의 없이 부부와 자녀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던 분 같았는데 얘기를 나누던 중에 '자녀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본인 또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쨌든 먼저 떠난 분이 '좋은 곳'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첫 방문 때, 늘 하던 대로 '교회 다니는지?'를 물어봤을 때 '시간되면 간다'고 해서 무늬 크리스천은 아닌가 싶었는데 '좋은 곳'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 생각이 덮쳐왔습니다. 현재 본인도 병이 있다고 하니 더더욱 전도해야 할 텐데 떠나간 사람을 그리는 마음에서 '자기만 천국에 갈 수는 없지'하며 복음을 거부한다면… 가장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이번 일을 계기로 영혼구원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과연 모임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현재 교회에서 받은 직분과 관계없이 '정말로 좋은 천국'에 소망을 갖고 사는지 짚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알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점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사별로 혼자되신 분들에게 더 눈길이 가게 되면서 그동안 그들의 마음을 주의 깊게 헤아려 보지 못한 죄스런 마음이 들어 '어떻게 도울 길이 없을까'에 대해 머리를 조아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별의 경험이 있는 분들끼리 유대관계를 가지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들만의 그룹을 눈에 띄지 않게 연결해주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세월이 꽤 지난 경우가 다수이지만 혹시라도 파괴적인 슬픔 속에 자신을 가두어 놓고 자기 연민 속에 있지는 않는지? 혹은 고인의 죽음과 관련하여 누군가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를 찾기 위해 추억, 상실에 대해 글로 써보고 억눌린 마음을 날려 보내는 등의 치유 방법을 쓴다면 슬픔을 다루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성경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후 5:1)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고후 1:3,4)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도자 여러분께서는 참석자들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 짚고 가는 동시에 사별로 혼자되신 분들이, 진정한 위로자되시며 치유자되시는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믿어집니다.

hyojungyoo2@yahoo.com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57-9199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516)520-2004 www.gcnyk.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Tel.(718)662-6611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516)387-9940, 9942(EM), www.cpcof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후 12:00
영어예배: 오전 9:3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00
금 요 기 도회: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8:00
Tel. (718)706-0100, www.ny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주일1부예배: 오전 7:15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55(월-토)
Tel. (718)762-2525, 5756, www.hyosh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늘기쁜교회**

담임목사: 김홍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화-토 오전 5:30
Tel. (718)359-0691, www.joyfulchurchny.org
61-51 Fresh Meadow Ln, Fresh Meadows, NY 11365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어예배(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 벽 예 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새벽예배: 매주토요일 오전 5:30
Tel.(718)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 벽 기 도 회: 오전 6:00 (월-토)
Tel.(917)733-7387, bmsc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오전6:00
Tel.(845) 359-1458, http://onnur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오전 6:00
Tel.(718)886-4040,www.kapcq.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Tel.(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엽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건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 대화를 들으시는 하나님

1939년 이후 84년 만에 남가주 지역에 열대성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멕시코 지역에서 8월 18일 허리케인 4등급까지 세력을 키워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북향해 올라 온다는 허리케인 힐러리로 인해서 남가주 지역은 난리 아닌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름철에 연중 건조한 남가주에 8월 19일부터 21일 동안 최대 강수량을 쏟아부어 홍수가 나고, 침수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연일 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공편이 취소되고, 주일에 열리려던 다저스 야구경기도 취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상점에 가서 음료수와 식품을 구입한다고 난리들입니다. TV에서는 되도록 출입을 삼가고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열대성 폭풍이 다가온다니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20일 주일 예배였습니다. 20일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것이 예보가 되어서 교인들이 교회에 오시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염려에 대해서 토요일 새벽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친교를 하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열대성 폭풍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주일예배 참석에 어려움이 있게 되지 않을까 서로 걱정하며 이야기를 하던 중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일 주일에 제일 좋은 방법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는 동안은 비가 내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비가 오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는 다시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집사님의 순수한 말이 떨어지자 마자 저도 동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내일 제일 좋은 방법은 성도님들이 교회 오기 전에는 비가 멈추고, 집으로 돌아갈 때 다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내일 내릴 폭우에 대해서 걱정하며 헤어졌습니다. 20일 주일 아침에 드디어 84년에 만에 만나는 열대성 폭풍이 남가주에 접근하여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 일인지 크게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주일 오전 L.A 코리아타운에는 폭우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는데 비로 인해서 마음을 포기할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예배와 친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전5:2).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판단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엡4:29).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대화 중에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시62:8)

yosupbois@gmail.com

유분자 이사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소망소사이어티 제 274차 소망죽음준비 세미나 열어

소망소사이어티 (이사장 유분자 장로)에서는 지난 8월14일(월) 저녁 7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의 '권사 기도의 밤' 시간에 100여명의 권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274차 소망죽음준비세미나를 개최했다. 소망소사이어티의 유분자 이사장은 "장수가 축복만은 아닌 때가 되었다. 우리 모두 품위 있게 살아가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혜롭게 준비하자"며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오래전에 작성한 본인의 소망 유언서를 공유했다. 또한 편안하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기 위해 화해와 용서는 꼭 필요한 단계임도 나누며 가슴 뭉클한 간증도 나누었다.

박줄리 교육부장은 소망유언서 한장 한장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과 준비해야 할 일들과 아울러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Healthcare Directives)의 중요성과 작성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한편, 소망회원인 한 장로의 간증 비디오는 사전의료지시서의 중요성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마지막으로 시신기증, 조가 프로젝트, 긴급연락처카드, 바람꽃 그리고 시니어 가이드북 등 소망소사이어티에서 진행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사역들에 대해 소개하며 세미나를 마무리 했다. 현재까지 소망소사이어티를 통해 사전의료지시서가 포함된 소망유언서 작성에 16,169분이 참여했고, 2,232분이 UCI Willed Body Program시신기증에 등록하였으며, 1,702개의 긴급연락처 카드가 발급됐다.

자세한 문의는 562)977-4580, somang@somangsociety.org로 하면된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우미쉘X원하트 워십투어 2023 집회모습.

## 우미쉘X원하트 워십투어 2023 성황리에 마쳐

한국 만나교회 찬양사역자 우미쉘 목사를 초청하여 개최한 우미쉘x원하트 워십투어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다. 8월18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OC의 감사한인교회와 LA의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열린 워십투어는 찬양을 사모하는 많은 예배자들이 모여 함께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미쉘 목사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 잃어버린 어린 양을 돌아오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다.

〈기사제공: 원하트미니스트리〉

세계선교교회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을 마친후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세계선교교회, 12명에게 장학금 수여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는 8월13일(주일) 예배시간을 통해 12명의 학생들에게 천 달러의 장학금을 각각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 장학금은 매년 11월 첫 토요일에 있는 바자회의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매년 더 많은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수여식에서 김창섭 목사는 "장학금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자들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쉼 없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은 다음과 같다. Chanmin Kang, Chanyoung Kang, Boseok Kim, Hyebin Kim, Isaac Seong, Eunseo Ju, Jacob Ji, Janice Soyeon Kim, Justin Jun Pak, Rachael Bae, Tae Kyung Kim, Yunjae Lee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룹교제및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현장전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773)8021112 estcross@yahoo.com*
*6050 W.TOUHY Ave. Chicago, IL 60646*

###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초,중,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703)581-9235 www.koreanp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

###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젼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동부교계 게시판

###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9월 기도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회장 손성대 장로) 9월 기도회가 9월 16일(토) 오전 8시에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 겟세마네 성전에서 열린다.

▲문의: 917-841-7552

### 프라미스교회, 한국어학교 가을학기 등록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는 한국어학교 가을학기 등록을 받는다. 퀸즈 개강일은 9월10일이며 등록비는 100불이다. 뉴저지는 금요일반 9월1일부터 12월8일까지, 토요일반 9월2일부터 12월9일까지 진행되며, 특별활동은 미술, 난타, 부채춤, 영한번역, 문예등으로 구성된다. 등록마감은 8월27일(주일)까지이다.

▲ 문의: 최덕희 전도사 551-265-0408.

### 퀸즈한인교회, 시니어 재정 세미나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는 8월27일(주일) 오후 1시 요한관에서 민금복 권사, 홍유미 변호사를 초청하여 시니어 재정 세미나를 개최한다.

▲ 문의: 718-672-1150

### 재미 납세자를 위한 한 · 미 세무설명회

뉴욕총영사관은 한국 국세청의 세무전문가 및 미국 조세전문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재미납세자를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를 9월7일(목) 오후 6시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개최한다. 참석자에게는 2023년판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kc-geco@mofa.go.kr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646-468-3282, 646-320-2872

### '아이자야씩스티원' 원데이 컨퍼런스 및 예배 인도자 모임

필그림선교교회(담임 양춘길 목사)는 한국의 '아이자야 씩스티원' 예배팀을 초청하여 9월9일(토) 오후 6시에 글로리홀에서 집회를 가진다. 또한 9월10일(주일) 오후 6시에는 지역교회를 섬기는 예배 인도자들과 예배팀들을 위한 모임인 워리커 (워십리더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다. 신청자만 참여할 수 있으니 https://forms.gle/5YyACdPjSixHxrwT8 링크하여 신청하면 된다.

▲ 문의: 201-461-1225

### 뉴저지장로교회, 버겐경로대학 개강

뉴저지장로교회(담임 김도완 목사)는 65세 이상 남녀 어르신을 위한 버겐경로대학을 9월9일(토)팰팍 예배당 친교실에서 열린다. 12월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50분까지 진행한다.

▲ 문의: 이애자 전도사(201-233-8427)

### 뉴저지온누리교회, 가을부흥집회

뉴저지온누리교회(담임 Marc Choi 목사)는 9월15일(금)부터 9월17일(주일)까지 김요셉 목사(수원 원천침례교회)를 강사로 초청하여 '예수님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가을부흥집회를 개최한다.

▲ 문의: 201-461-4010

### [MD] '미션 익스포저'(Mission Exposure) 선교학교

벧엘교회(담임 백신종 목사)는 2023년 CWM 온라인 '미션 익스포저'(Mission Exposure) 선교학교를 9월14일(목)부터 10월25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한다. 세계선교에 대해 관심이 있는 성도 누구나 등록 가능하며 등록기간은 9월3일 (주일) 까지이다.

▲ 문의: 정인성 집사 240-393-7774


피종진목사 8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 | | |
|---|---|---|
| 1(화) 오후 | 서울 강남순종교회 (오승준 목사) | 010-3942-8434 |
| 1(화)~2(수) | 인천 소망교회 (최승리 목사) 주최 : 미라클국제선교회 (대표회장 김수아 목사) | 010-6414-3307 |
| 3(목) 저녁 | 세종평화의동산 (원장 피종진 목사) | |
| 4(금) 저녁 |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랑 목사) | 010-8331-3431 |
| 6(주일)~8(화) | 마산 창원세움교회 (이경호 목사) | 010-5692-3775 |
| 9(수)~11(금) | 인천 행복으로가는교회 (최규석 목사) | 010-5278-0065 |
| 10(목) 오후 | 안양 갈멜산기도원 (담임 조성근 목사) | 031-472-7212 |
| 12(토) 오전 | 분당 주영광교회 (전옥란 목사) 주최 :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대표총회장 (남보석 목사) | 010-2445-1691 |
| 13(주일) 저녁 | 서울 새샘교회 (신규식 목사) | 010-6725-7040 |
| 14(월) 오전 | 서울 한국기독교 연합회관 | |
| 14(월) 오후 | 한얼산기도원 (원장 이영금 목사) 주최 : 예수사랑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조유식 목사) | 010-9957-6669 |
| 14(월) 오전 |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주최 : (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 |
| 15(화) 오후 | 진안군 임마누엘 냉천수양관 (원장 이공순 목사, 행정목사 박복주 목사) | 010-4132-1191 |
| 16(수) 오전 · 후 저녁 | 강남금식기도원 (원장 최동인 목사) 교무부장 김진성 목사 | 010-3790-2462 |
| 17(목) 오후 · 저녁 | 대구 글로벌 신유축복성회 (원장 강은숙 목사 담임 박종일 목사) | 010-3670-8999 |
| 18(금) 오후 · 저녁 | 제천 열방교회 (최미나 목사) | 010-2985-9077 |
| 19(토) 오전 저녁 | KK, Blessing MT 서울축복교회 (김순복 목사) 주최 : 지.선.협 (이사장 강영준 목사) | 010-9260-1091 |

제 232차 해외성회 (232nd Overseas Assembly)

| | | |
|---|---|---|
| 20(주)~22(화) | 필리핀 (Philippines) Baquio. 200여 교회 목회자 연합 영성 수련회 준비위원장 (윤상오 선교사) 주최 : 느헤미야 부흥사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 010-7574-5164 010-7522-0236 |
| 23(수)~25(금) | 필리핀 (Philippines) Launion (북부 루손지역) 영성충만성회 주최 : 느헤미야 부흥사회 (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주관 : 세계선교전략사령부 (윤상오 선교사) | 010-7522-0236 010-7574-5164 |
| 28(월)~29(화) | 베트남 (Vietnam) Overseas training Session (사)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이종선 목사) | (032) 219-9191 |
| 30(수)~9.1(금) | 베트남 (Vietnam) Overseas MT | |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www.nsca.or.kr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임직감사예배 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 뉴욕양무리장로교회 2023 임직감사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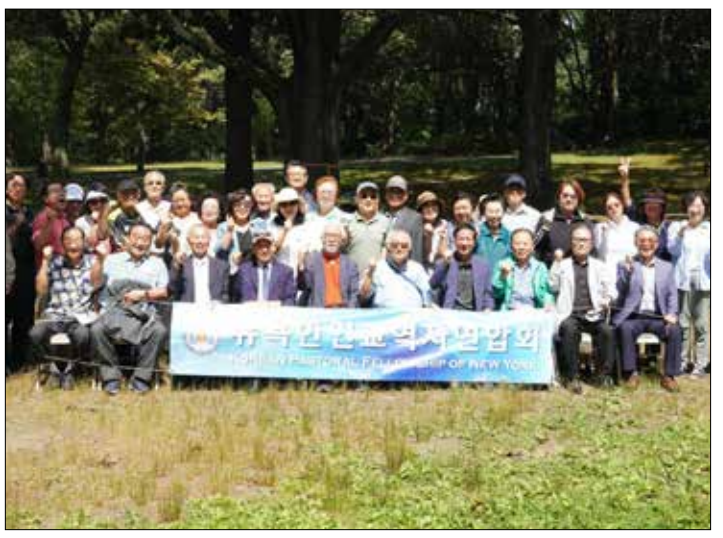
### 장로, 권사 총 4인 임직 받아

뉴욕양무리장로교회(담임 이준성 목사)는 임직감사예배를 20일(주일) 오후 5시에 드렸다.

임직감사예배는 인도 이준성 목사, 경배와 찬양 아도나이찬양팀(인도 김홍배 목사, 교협 서기), 기도 김지희 목사(KAPC가든노회 서기), 성경봉독 김희숙 목사(교협 수석협동총무), 찬양 조동현 장로(교협 이사장), 설교 허상회 목사(KAPC가든노회장), 봉헌송 김기환 목사(KAPC가든노회 회록서기), 봉헌기도 송윤섭 장로(교협 회계)의 순서로 진행됐다.

허상회 목사는 "영광의 상을 얻는 사람들(베드로전서 5:1-6)"을 제목으로 "하나님은 일꾼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임직자들을 부르셨다"며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라"고 부탁했다. 이어 임직식을 통해 장로 장립 윤재천, 권사 취임 오드리 김, 권사 임직 윤인숙과 최영애 등 4인이 임직을 받았다. 이들은 함께 서약했으며, 장로 안수와 권사 안수가 따로 이어졌다. 허걸 목사(교협 증경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친목회 참석자들이 다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 BBQ & 친목회

### 뉴욕 한인 교역자들이 함께한 친목과 화합의 시간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이하 뉴욕교연, 회장 이재덕 목사)는 BBQ & 친목회를 8월 11일(금) 오전 11시 앨리폰드 파크에서 열었다.

1부 예배는 사회 김봉규 목사(서기), 대표기도 김원기 목사(증경회장), 성경봉독 송금희 강도사(회계), 설교 이풍삼 목사(한인동산장로교회), 축도 한재홍 목사(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풍삼 목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누가복음 24:24~28)"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를 알고 준비하여 성도들이 따르게 하는 목사의 막대한 사명을 강조하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니 시간을 내어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친교의 시간은 회장 이재덕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또한, 환자들을 위한 기도를 허걸 목사(교협 증경회장)가 했으며, 교계의 화합을 위하여 정순원 목사(교협 증경회장)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만호 목사(교협 증경회장 단 의장), 이준성 목사(교협 회장), 박태규 목사(목사회 증경회장)가 축사를 전했으며 유상열 목사(직전 회장)의 식사 기도 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정리: 김재상 기자〉

## 뉴욕예일장로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헨델의 '메시아' 공연 개최

### 교회 부흥과 성장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은혜

뉴욕예일장로교회(담임 김종훈 목사)가 창립 30주년 기념 공연으로 9월 10일(주일) 오후 5시에 Molloy 대학교 매디슨 극장(Madison Theatre)에서 헨델의 '메시아' 공연을 개최한다.

김종훈 목사는 "예일교회는 처음부터 사람이 중심이 아닌 예수님이 제일이신 교회로 목표를 삼고 30년을 지나왔다. 지금의 예일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우리가 드릴 마땅한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언과 탄생, 수난과 속죄, 십자가의 부활과 영생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잘 표현한 헨델의 '메시아'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헨델의 '메시아' 공연의 주요 출연자는 지휘자 조성식, 소프라노 김혜란, 알토 지민리, 테너 이다니엘, 베이스 이배준, 악장 유안나, 피아노 정지은, 오르간 백승은 등이다.

한편,뉴욕예일장로교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는 지난해부터 시작되어 2022년 9월 25일에는 교회에서 하우스 콘서트를 개최했으며, 10월 9일에는 카네기홀에서 세계 밀알찬양대행진에서 협연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는 5월 21일(주일)에 감사예배를 드리고 임직식, 30주년 기념 필사성경 봉헌, 30주년 사 및 김종훈 담임목사 칼럼집 발행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예일장로교회 헨델 메시아 공연 포스터

## 남침례교 뉴욕지방회 수양회 개최

### 후배 목회자들의 비전발표, 선배 목회자들은 멘토링

남침례교 뉴욕한인지방회(회장 한필상 목사)는 8월14일(월)부터 16일(수)까지 킹스톤에 있는 Best Western Hotel에서 '목회비전과 나눔'을 주제로 목회자 가족 수양회를 가졌다.

한필상 목사는 "이번 수양회의 특징은 4명의 40대 목회자가 이틀에 걸쳐 자신의 목회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발표하며, 선배목사들의 경험과 조언 등을 통하여 발전적 목회관을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첫날 박현준 목사의 사회와 신은철 목사의 기도, 박진하 목사의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안정적 목회를 추구하는 목회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진취적인 목회자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며,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목회자가 될 것을 부탁했다. 이어서 김재용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저녁식사 후에 박춘수 목사의 인도로 목회자 나눔 및 기도회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은 오전 모임을 가지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목회자 가정은 자녀들과 함께 지역 동물원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자녀가 없는 목회자 가정은 Woodstock 지역을 탐방하는 시간과 자유시간을 가졌다. 저녁식사 후에 둘째 날 발표가 한필상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발표 후 선배 목사들의 조언과 격려의 시간을 가지고 젊은 목회자와 지방회 교회와 목회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박현준 목사의 마치는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수양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저녁 집회 중 다함께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 뉴욕효신장로교회, "한 여름밤의 꿈" 행사 개최

### 전교인이 교회 안에서 가지는 회복과 충전의 시간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김광선 목사)는 8월14일(월)부터 18일(금) 저녁까지 전교인이 함께 하는 "한 여름밤의 꿈" 행사로 전교인 수양회를 개최했다.

김광선 목사는 "한 여름밤의 꿈을 통해 특정 세대뿐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고, 하나 되기를 기대하며 올해 행사 주제도 '함께 꾸는 꿈은 황홀하다'로 정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지 전 세대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경험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별히 휴가를 가기 힘든 뉴욕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회복과 충전의 시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교회 곳곳을 휴가지와 같은 분위기를 풍기도록 해변 장식으로 꾸몄으며 꽃목걸이를 성도들에게 걸어 주며 맞이했다.

5일간 계속된 저녁 집회에서 김광선 목사는 교회가 주님 주신 꿈으로 인해 가장 찬란히 빛났던 사도행전 속의 다섯 인물을 통한 설교를 전했다. '연합을 꿈꾸다'(사도행전 9장, 바나바), '부흥을 꿈꾸다'(사도행전 6장, 베드로), '천국을 꿈꾸다'(사도행전 7장, 스데반), '혁신을 꿈꾸다'(사도행전 11장, 고넬료), '예배를 꿈꾸다'(사도행전 27장, 바울)를 제목으로 5일간 매일 저녁 설교했다. 매일 저녁 예배 후에는 야외만찬장에서 다양한 메뉴로 준비한 특별야식을 나누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정리: 김재상 기자〉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 월드미션,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 "온라인교육과 영성의 방향, 과제와 목표 제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17일(목) 오후 4시 본교 스마트강의실에서 가졌다. 임성진 총장은 "본교 설립자 임동선 목사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 코비드 기간을 지나고 온라인 사회를 살면서 영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며 임 총장은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첫 행사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학교에 임해 월드미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선묵 부총장은 '임동선 목사의 삶과 영성'에 대해 발제했다. 신 부총장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분을 찾았다. 한국교회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을 생각했으며 이민교회는 임동선 목사님을 생각했다. 임동선 목사의 삶을 영성이란 관점으로 볼 때 선교가 영성이다. 기독교영성은 기본적으로 선교적이고 선교로 표현될 때 완결되는데 그걸 임 목사의 삶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동선 목사의 영성을 정리하면 웨슬리안 전통의 복음주의적 체험적인 영성과 전도와 선교 지향적인 영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체험적인 영성은 회심, 거룩함, 성령 충만 등의 복음주의 영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 지향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다. 임목사의 선교지향적인 영성을 좀 더 살펴보면 △첫째, 그의 영성은 실천적이고 활동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이다. △둘째, 그의 활동적인 영성은 전도 활동을 시작으로 문화를 가로질러서 세계 선교를 활동적으로 임하는 영성이다. △셋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되 현장 속에서 성육화된 영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넷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있어서 충제적인 선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그의 이런 선교 지향적 영성은 세상 속에서의 성도들의 활동을 도전하고 격려하고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도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시간은 최윤정 교수가 '온라인교육과 영성의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최윤정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온라인교육의 부상과 발전을 생각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블랜디드 러닝 방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 교육의 과제와 목표를 설명했는데 "첫째 영성개발, 둘째 공동체와 코이노니아, 셋째, 사회적 섬김과 실천"이라 말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송정명 목사(직전 총장)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남가주주님의교회 가을부흥회

## "선한영향력이 나눠지는 은혜의 사람 되길"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최현규 목사) 가을부흥회가 18일(금)~20일(주일)까지 지성업 목사(대전산성교회 담임)가 강사로 초청된 가운데 열렸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최현규 목사 사회로 20일(주일) 오전 11시 15분 마지막 날 집회는 조준희 장로가 기도했으며 김재천 목사가 성경봉독했다. 성가대 찬양에 이어 지성업 목사가 '우리는 영향력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행 24:1-5)'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시대를 반영한다. 웰다잉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품위 있으면 좋겠다고 사용 하는 것 같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에 소통이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세대 간 이념 간 소통이 잘 안되어 안타까움에서 나온 말이며 요즘 리더십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그것은 리더가 많은데 참된 리더십을 발견하기 어려워서 나온 말"이라며 "리더십의 공허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리더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했다. 그는"리더십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권력이 곧 리더십이다: 인성이 없는 상태에서 권력을 잡으면 구성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직책이 있으면 리더십이 있다: 중요한 요소이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그 위치에 있으면 고통을 받게 된다. △경험이 많으면 리더십이 있다: 경험이 정말 리더십이 되려면 경험과 함께 변화는 시대를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전문성이 있으면 리더십이 있다: 리더십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리더십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신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 바울을 소개하며 "본문에서 언급한 전염병은 영적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다. 그것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리더십의 모습이다. 내 안에 있는 선한영향력과 영적인 영향력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염시킬 선한영향력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 리더십의 사람이 된다. 선한영향력이 아름답게 나눠지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집회는 결단의 찬양을 최현규 목사가 인도한 뒤 지성업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주님의교회 가을부흥회에서 지성업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엘피스 가정사역원 주최 제3회 힐링캠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엘피스 가정사역원 제 3회 힐링 캠프

##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면 삶이 편안케 돼"

엘피스 가정사역원(대표 박운송 목사)은 '나만의 마음근력 키우기'라는 주제로 제 3회 힐링캠프를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마더돌로로사에서 열었다. 21일(월) 오전 11시 박운송 목사 사회로 열린 개회예배는 문정란 목사가 찬양을 인도했으며 김웅민 목사(이사장)가 요 16:17-18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김웅민 목사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소원을 심으셨다. 그것은 참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싫어하는 마음"이라며 "성령으로 거듭남은 이 마음을 찾는 것이다. 세상에 속아 헛된 가치를 추구하던 우리들이지만 성령께 진정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좋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목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것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것으로 가치관이 바뀌면 삶이 편안하게 된다. 오늘 모인 우리들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축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마음근력 키우기 1강이 있었으며 이날 캠프에 참여한 자들의 삶의 간증을 듣는 '우리들의 이야기'시간을 가졌다. 또한 저녁시간에는 MBTI진단검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은 하부루타, 캘리그라피, 마음근력키우기 2강, 우리들의 이야기, 세수식, 중보기도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날은 강희종 사모(새생명비전교회)의 특강이 있었다.

〈박준호 기자〉

이영숙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 생수의강선교교회 5인 5색의 8월 세미나

## "교회의 가르침이 아이들의 세계관에 영향 끼쳐야"

생수의강선교교회(담임 최형규 목사) 5인 5색의 8월 세미나 세 번째 강의가 16일(수) 오후 7시30분에 열렸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최형규 목사 기도와 사회로 열린 세미나는 이영숙 박사(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가 잠 25:11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영숙 박사는 " 하나님의 성품은 이 땅의 어떤 가치보다 더 귀중하다. 한 사람의 생각의 표현, 감정에 대한 표현, 그리고 행동의 표현이 성품"이라 설명하고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성화의 과정이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이러한 과정을 가르쳐야 하며 성품을 배우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꾸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가치관"이라 설명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놀라운 가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는 교육학 용어로 공감인지능력이다. 이는 아픔을 공감해주는 능력 다른 사람의 속상함을 이해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은 탁월한 가치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계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기에 교회의 가르침이 아이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을 충만하게 표현하고 교류하기 바라며 이러한 교류는 어린 아이 때부터 연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의를 마친 후 최형규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한 뒤 모든 순서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나성한인교회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한다. 본 오케스트라는 나성한인교회에서 오케스트라 연주와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2세 자녀들의 성숙한 크리스천 영성형성과 음악선교적 체험 및 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합주가능한 학생과 성인연주자이다.

▲ 문의: (323)221-9531

### 은혜평생교육대학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부설 은혜평생교육대학이 9월6일(수) 가을학기를 시작한다. 가을학기 강좌는 11월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50분까지 교회 내 비전센터 2층 친교실에서 총 11주 동안 진행된다. 과목은 생활영어, 건강(라인)댄스, 한국창작무용, 중국어, 성악(노래교실), 색소폰, 드럼, 키보드, 크로마하프, 기타, 서양화, 수묵화, 서예, 사진, 컴퓨터, 스마트폰 등이다.

▲ 문의: (714)863-7373, (714)496-1646

### 2023밀알의 밤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2023밀알의밤이 오는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열린다. 이번 밀알의 밤은 개그맨 김영철 씨가 출연하며 일정은 9월29일(금) 오후 7시30분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 30일(토) 오후 7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10월1일(주일) 오후 7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이다.

▲ 문의: (213)300-7214

### 폴 아트 리 목사 제8회 개인전

화가 폴 아트 리 목사 제8회 개인전이 '생명의 빛(요 1:4)'이라는 주제로 25일(금)부터 9월1일(금)까지 bG Gallery(2525 Michigan Ave #A2, Santa Monica, CA 90404)에서 열린다. 오프닝 리셉션은 26일(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열린다.

▲ 문의: harooah@gmail.com

### 저소득층 자녀 무료 성악클래스 후원 콘서트

쥬빌리 뮤직 아카데미(대표 김미경) 주최 저소득층 학생 무료 성악클래스 후원을 위한 콘서트가 오는 9월 8일(금) 오후 7시 중앙일보 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날 출연자는 소프라노 김미경, 메조 소프라노 조지영, 테너 오위영, 바리톤 장상근, 피아니스트 김주영 등이 출연한다. 참가 티켓 가격은 50달러

▲ 문의: (213)435-8741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화합의 목소리 콘서트에서 출연자들이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화합의 목소리 콘서트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과 LA매스터코랄(임시대표 테리 노리스)이 공동주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화합의 목소리 콘서트가 18일(금) 오후 8시 월트디즈니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부산시립합창단(지휘 이기선 교수)과 LA매스터코랄(음악감독 그랜트 거션)이 무대에 올라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했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이날 '목소리들의 서곡', '빛의 강', '어메이징그레이스', ' 두껍아 두껍아', '정선아리랑', ' 기억의 노래'를 불렀으며 LA매스터코랄은 '성령과 함께', '광명한 새벽별', '환희 빛나는 이 밤', '경복궁 타령'을 불렀다. 그리고 두 합창단이 함께 '쉐난도',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 '쉐난도&아리랑'을 불렀으며 앵콜곡으로는 청중들과 함께 'This Land is Your Land'를 불렀다.

〈박준호 기자〉

# 테너 오위영 독창회

보나뮤직(대표 이혜자)이 주최한 테너 오위영 독창회가 20일(주일) 오후 3시30분 파사데나장로교회(담임 최진영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독창회는 다운증후군, 자폐증,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및 기타 진단되지 않은 장애가 있는 특수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Best Buddies' 후원을 위해 열렸다. 테너 오위영 목사는 "이번 독창회를 준비하면서 노래를 하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축복되고 행복한 삶인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며 "특별히 비영리단체 '베스트버디'를 후원하는 음악회로 열려 감사하다. 오늘 음악회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프라노 김종숙의 사회로 열린 이날 독창회는 테너 오위영이 피아니스트 린 후앙의 반주에 맞춰 'You Raise me up', '남몰래 흐르는 눈물', ' 여자의 마음', '그리운 금강산', ' 공주는 잠 못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 '주기도문' 등 그의 애창곡 중 오페라아리아, 가곡, 성가곡을 불렀다. 이어 '오 솔레미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앵콜곡으로 불렀다. 이날 오위영 목사의 음악동료들이 함께 나와 '참 좋으신 주님'과 ' 축복하노라'를 부른 뒤 막을 내렸다.

〈박준호 기자〉

테너 오위영 독창회를 마치고 출연자들과 보나기획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청년 가장의 무게' 덜기 위해 민·관 전문가 뭉친다

###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 서울시와 '가족돌봄청년' 지원 위한 업무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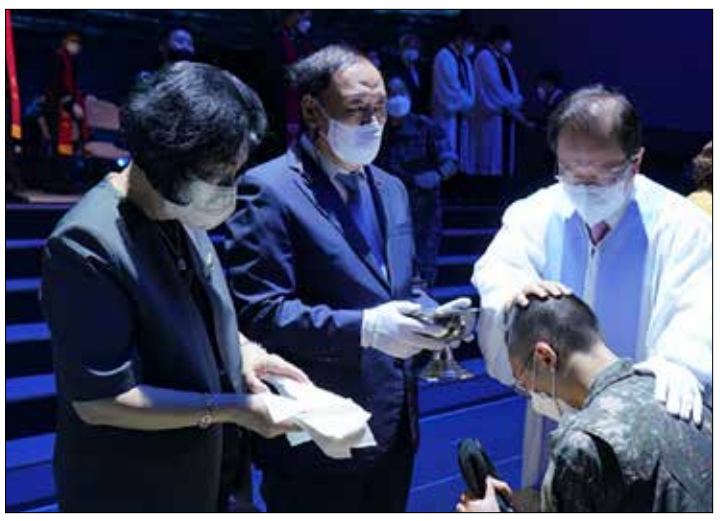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22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원식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각 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 기관이 협력해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한 최초 사례로 서울시 내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기아대책과 서울시 등 협약 기관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기아대책은 사업에서 가족돌봄청년과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후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가족돌봄청년들이 모여 교류하며 정서적 지지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조모임비'도 제공할 예정이다.

유원식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이른 나이에 가장이 된 아동과 청년들은 경제적 결핍과 정서적 불안의 아픔을 홀로 견뎌내며 일찌감치 사회에서 홀로 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민관 사업 추진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하성, 육군장병 2000명 대상 진중 세례식 진행

### 세례 장병들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할 것" 다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지난 19일 군 장병 2000여명이 참여한 진중 세례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하성은 이날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내 연무대군인교회(강무일 목사)에서 진행된 '제611차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진중 세례 예식 및 훈련병 예배'를 지원했다. 이날 행사는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주관했다.

기하성 군선교위원회(위원장 고석환 목사)에 따르면 이날 2500여명의 훈련병 중 2000여명이 진중 세례를 받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가장 큰 인원이 참여했다. 기하성 군종목사단장 박흥재 목사를 비롯해 기하성 군선교위원회에서 나온 60명의 목회자는 이들을 위해 직접 세례예식을 진행했다. 세례예식에는 110여명의 봉사자들도 참여해 군 장병의 세례를 도왔다.

이영훈 목사는 세례 참여자들에게 "훈련병의 사명을 고취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용기를 가지라"며 영상으로 격려사를 전했다. 이어 예배 설교자로 나선 기하성 전 총회장 이태근 여의도순복음은혜교회 목사는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다섯 번 태어난다"며 "오늘은 세 번째 태어나는 날로, 예수님을 믿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며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하성은 이날 세례를 받은 훈련병들에게 성경책과 십자가 목걸이, 텀블러 등 7종의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 "태권도로 제자양육… 2030년까지 500명 태권도 선교사 파송할 것"

### 온 가족 태권도 선교에 헌신 심창수 TIA태권도선교단 대표

지난 8일 선교연합체 선교한국이 주최한 제18회 선교한국대회가 열린 경북 포항 한동대 효암관. 빨간색 십자가가 새겨진 도복을 입은 TIA태권도선교단(대표 심창수 목사) 단원들은 기합을 넣으며 3단 격파 시범을 보였다. '복음격파'를 성공적으로 한 단원들은 드라마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는 '태권도 사영리 드라마' 공연을 선보였다.

최근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선교단 도장에서 선교단 대표 심창수(57) 목사를 만났다. 심 목사는 "'선교 관심자'들이 모인 선교한국대회에서 태권도 선교를 소개할 수 있어 감사했다. 내년에는 '태권도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70명을 해외에 파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태권도 국가대표 출전 이력이 있는 심 목사는 선수 시절 순회공연으로 방문한 유럽에서 현지 교회들을 목격하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영적으로 무너진 유럽 교회를 보면서 태권도 달란트를 선교하는 데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는 용인대 졸업 후 세계스포츠선교회(이사장 이광훈 목사·대표 임석순 목사)에서 활동하며 전도 공연 사역을 이어갔다. 그러다 제자양육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인 CCC에서 훈련받은 심 목사는 태권도를 제자훈련 사역에 접목했다.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인 박은주 CCC 간사와 함께 1994년 CCC 부설기관으로 선교단을 창설했다.

1996년 박 간사와 결혼한 뒤 가족 전체가 태권도 선교에 헌신하고 있다. 심 목사는 "첫째 딸 이름은 태선(태권도로 선교), 둘째 딸 태영(태권도로 영광), 막내딸 태희(태권도로 기쁨)로 이름을 지었는데 감사하게도 자녀들이 부모의 '태권도' 유전자를 이어받아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교단은 태권도로 전도·훈련·파송·재생산 사역을 한다. 이를 위해 '태권도 전문인 선교사 훈련' 레벨 1·2를 개발했다. 레벨 1 프로그램은 전도훈련, 강해 설교(LTC), 태권도 훈련(TLTC), 팀빌딩으로 구성된다. 레벨 2는 레벨 1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지 점검하고 태권도 지도법 등을 전수하는 지도자 과정이다. 선교단 창단 후 지금까지 40개국에 150여명의 태권도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했다.

심 목사는 "해외에 파송한 제자들이 현지인을 상대로 태권도 선교를 통해 재생산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2030년까지 500명의 태권도 전문인 선교사(레벨 2)를 해외 파송하는 게 선교단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선교단은 2017년부터 해외 선교사 제자들의 항공료 지원을 위한 'TIA 오병이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 동성애 비판 땐 배상 책임 '대못'…

### "동성애는 죄" 설교 못할 수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은 교육과 문화 등의 일반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의 '뜨거운 감자'다. 성경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고 종교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차금법안은 '개별적 차금법'과 '포괄적 차금법'으로 나뉜다. 현재 성별 장애 연령 등 불가항력적 차별금지 사유가 있는 개별적 차금법은 20개 이상 존재한다. 포괄적 차금법은 헌법 제11조 1항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차금법의 가장 큰 논란은 동성애를 포함한 개념인 '성적지향'과 남성과 여성 이외의 성을 지향하는 '성별(젠더)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 견해를 밝힐 경우,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차금법 위반으로 간주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악의적인 차별로 인정된 경우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손해배상액(하한액 500만원)을 정할 수 있다. 복음법률가회 소속의 조영길 변호사는 "차금법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며 "신앙·양심·학문·언론 등에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본적인 자유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짚었다.

차금법은 종교 표현의 자유와도 직결된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쳐 동성애를 '죄'로 명시하며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만약 차금법이 통과될 경우 목회자는 더이상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예수의 부활과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느껴질 수 있는 비기독교인 또는 반기독교인의 감정적 불편을 차별로 간주하고 법 위반 책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차금법의 22~23개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속한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차금법은 단순히 동성애를 다루는 법이 아니다. 종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전과범을 옹호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금법이 통과될 경우 더이상 기독교의 윤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훼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NYU 의대 훼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 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 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 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훼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스마트폰 교실 오세요"…

### 요즘 교회가 시니어 성도 섬기는 법

박민숙(74)씨는 휴대전화 판매장을 수시로 찾는 '단골'이었다. 스마트폰을 자주 바꿔서 단골이 된 건 아니었다. 스마트폰을 쓰다가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매장으로 향했다. 박씨는 "자녀들은 일하느라 바쁘고 중3 손주는 가르쳐 달라고 하면 툴툴거려 눈치가 보였다"고 했다.

어르신들에게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은 낯설기 마련이다. 이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교회가 있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 한소망교회(류영모 목사)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교육과정인 '스마트 시니어'가 진행됐다. 교회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3주 동안 매주 한 차례 화면 캡처 같은 스마트폰 기본 기능을 비롯해 모바일 장보기, 카카오톡·키오스크 사용법까지 가르쳐준다. 이날 프로그램엔 25여명이 참석했고 2040세대 10명이 멘토로 나섰다.

이날 만난 박씨는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손을 번쩍 들어 멘토를 불렀다.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고 싶어 교회에 처음 온 남씨도 궁금한 게 많아 보였다. 멘토들은 수강생 옆에 찰싹 붙어 일일이 조작법을 가르쳐줬다. 재수강생인 박씨는 "가족도 똑같은 질문을 서너 번 하면 귀찮아하는데 이곳 사람들은 항상 친절히 답해줘서 좋다"며 반색했다.

스마트 기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교회는 또 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만나교회(김병삼 목사)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법을 알려준다. 교회는 반을 둘로 나눠 다음 달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회 앱과 줌(Zoom)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반과 일상 생활에서 활용하는 메신저·은행 앱,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반이 있다.

고령층은 대표적인 정보 취약 계층으로 꼽힌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보면 고령층은 정보취약 4대 계층(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가운데에서도 뒤처져 있다.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PC·모바일기기 이용 능력)에선 4대 계층 가운데 가장 낮았다. 모바일 인터넷 활용도 등을 조사한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에서도 고령층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교역자들은 시니어 대상 스마트폰 강의를 교회들이 시도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시니어들 수요가 높고 교인 간 교제를 비롯해 시니어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평가다. 이창희 만나교회 부목사는 "이젠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않고는 크게 불편한 시대"라며 "과외식 밀착 교육과 함께 고령층이 교회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서도 복습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별도로 준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37)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 우리는 팀워크를 하고 있는가?

태국의 북쪽 지역은 선교계에서 전략적으로 요충지와 같이 많은 단체들과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 한 지역에 한 선교단체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여러 개의 팀으로 나뉘어 있다고 한다. 기능적이나 관심 영역적으로 다른 팀들이 모여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선교사들 스스로는 함께 하기 어려워서 나누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어느 것이 가장 좋은 해결점인지 여기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단체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아닐까. 이것은 한 단체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 162개국 이상에서 사역하고 있는 3만여 명의 한인 선교사들의 열정은 누구도 비난하지 못할 만큼 뛰어난 점이 있지만, 팀워크에서 만은 자주 비판을 받고있다. 한국선교가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욱 건강한 팀워크를 기대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배우고 실천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팀의 다섯가지 역기능"이라는 책을 저술한 패트릭 렌시오니라는 실리콘 밸리의 경영 컨설턴트는 팀워크를 점검하고 건강한 팀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팀워크를 점검할 때에 첫째로 역기능 팀의 특징은 신뢰의 결핍이라고 말한다. 팀원들이 동료의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진심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을 이야기할 수 없는 팀의 구성원들은 신뢰의 기반을 쌓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팀에서 서로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각자 팀원들이 가진 자신의 취약점을 다른 팀원들이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 취약성에는 결점이나 재능부족,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 실수 등이 포함된다.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을 때는 서로 정치적 계산에 따라 상대를 대하거나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는 팀원들이 대인관계를 관리하느라 과도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고 결국은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고 높은 이직률만 만나게 만든다. 그 특징은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동료들에게 감춘다. 동료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는다. 자신의 책임 영역이 아닐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고 돕지 않는다. 다른 동료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쉽게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동료들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는 데 실패한다. 자신들의 행동이 불러올 파장을 관리하는 데 과도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 그리고 마음속에 항상 감정의 앙금을 남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회의를 두려워하거나 함께 있는 시간을 피할 이유를 찾는다.

그러나 신뢰하는 팀원들은 그 반대의 행동방식을 보인다. 그들은 약점과 실수를 시인한다. 팀원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청하며, 자신의 책임 영역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과 정보를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 어떤 사항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유리하도록 믿어준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기꺼이 피드백과 도움을 준다. 동료들의 기술과 경험을 인정하고 활용하며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주저 없이 사과하고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인다. 회의 시간을 비롯하여 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하는 행동을 한다.

신뢰의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 함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개인사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 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일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각 팀원들이 다른 팀원 한 명 한 명에 대해 그 사람이 현재 팀에 기여하는 최대 공헌은 무엇이고, 팀의 이익을 위해 개선하거나 없애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하는 것을 하라고 한다. 이것은 아주 민감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조금만 신뢰가 쌓여지면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좋은 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더 잘 알수 있는 성격과 행동성향을 검사하여 나누는 방법이 필요하다. MBTI (마이어브릭스 유형지표) 등 성격유형 검사를 전문가와 함께 해보는 것은 아주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좋은 방법이 된다. 팀 체험은 극기훈련 등의 야외활동을 함께 함으로 팀워크를 다지는 방법이다. 또한 위험도가 높기는 하지만 360도 피드백 방법도 활용해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 이때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며 위신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때까지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할 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는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저자는 바른 충돌이 팀웍을 만들어가는데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역기능팀의 특징은 충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것이다. 신뢰가 없는 팀은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 거리낌 없이 비판을 하는 논쟁을 벌일 수 없다. 솔직하지 못한 토론과 자기방어적인 말만을 일삼는다. 위에서 제안한 신뢰의 부족을 극복해 나가면 충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쉽다.

저자는 우리는 그동안 충돌을 금기시해 왔다고 말한다. 업무상의 충돌은 더욱 그렇게 믿어왔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열정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과도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점은 생산적인 이념의 충돌과 파괴적인 싸움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념적인 충돌은 개념과 사상의 문제에 제한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인간성에 논쟁의 초점을 맞추는 등의 비열함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생산적인 충돌의 유일한 목적은 최단 시간에 최고의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감정의 앙금이 없이 열띤 논쟁을 끝맺으며 다음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열의와 자발성은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우리 한국문화와는 너무나 다른 듯한 제안을 하고 있지만 곱씹어보면 우리 문화에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용인하여 왔다는 것을 알게된다. 어려서 종종 하는 말이 "아이들은 서로 싸우면서 친구가 된다"고 아이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타협해가는 모습 들에서 성장 함을 보아왔던 것이다.

충돌을 두려워하는 팀은 회의 시간은 따분하지만, 막후에서 정치적 알력과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논쟁을 피하기 때문에 팀원들은 모두가 의견 청취에 실패하고 짐작하여 그럴 것이다 라는 식의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바른 충돌이 용인되는 팀은 회의 시간이 활기차고 흥미로우며 팀전체가 생각을 끄집어내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고 중요한 문젯거리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대인관계 관리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된다. 이렇게 충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충돌이 생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충돌을 피하는 팀원들을 충돌의 현장으로 끌어내는 충돌을 캐내는 광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TKI (토머스-킬만 충돌관리유형 검사)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충돌을 둘러싼 인간의 근본 성향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팀원들이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접근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충돌을 위해서는 리더는 심리적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 충돌로 말미암아 팀원들이 피해를 볼까 생각해서 막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자연스럽게 해결해가도록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건전하다 하더라도 충돌이란 한국문화와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아주 어려운 일이다. 부부 관계, 부모자식 관계, 친구 관계 등에서는 특히 그렇다. 금기시 되어온 문화특성이 이를 막고 있지만, 건강한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건전한 충돌을 지나고 나서야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거나 거부당했다 하더라도 팀의 결정사항에 확신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다.

헌신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명확성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업무"라는 주인의식이다. 팀의 헌신이 결핍된 이유는 만장일치에 대한 욕심과 확실성의 결핍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헌신에 실패하는 팀의 행동방식은 행동지침과 우선순위에 관해 팀 내부에 애매성을 가져오고 과도한 분석과 불필요한 결정 연기로 결국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발생한다. 신념의 결핍과 실패의 두려움을 조성하게 되고 끝없는 토론과 결정의 번복을 거듭하게 된다. 그러나 헌신하는 팀은 공동의 목표를 놓고 팀 전체가 함께 조율하고 실수를 통해서도 학습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며 결국은 경쟁자보다 앞서갈 수 있게되는 것이다. 헌신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회의 중 도달한 핵심 결의사항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다음 단계의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단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릴 마감 시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간 결정과 논의상의 주요 단계 도달 시점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는 팀 내에서 문제에 관한 논의를 끝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압박을 해야 하며 팀이 설정한 시간표를 고수하여야 한다. 확실성이나 만장일치에 지나치게 높은 가치를 부여해서도 안된다.

네 번째의 함정은 책임의 회피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팀은 서로 다른 업무수행 기준을 가진 팀원들 사이에 원망이 싹트고 평범함을 강조하며 마감시한과 핵심적인 약속사항을 놓치는 일이 많아진다. 그러나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팀은 개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선의 압박을 느끼게 만들고 주저없이 상대의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신속하게 문제점을 확인하며 높은 기준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팀원들 사이에 존중심이 확립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기준이 명확하여야 한다. 팀이 이루고자 하는 팀의 목표가 무엇이고 누가 무슨 일을 맡아서 해야하며 성공을 위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등을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 업무수행에 관한 피드백을 주고받게 하는 것도 효과적이며 팀원들이 목표나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 반드시 정기적인 대화를 나눌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분명한 기대치나 구조적 장치없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책임회피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팀의 동료들이 자신들이 공헌해야 할 온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들은 개인적인 욕구를 위해서만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섯 번째 함정인 팀의 공동의 결과에 대한 무관심을 가져오게 한다. 저자는 팀의 결과가 아닌 팀의 위상이나 개인의 위상에 초점을 맞추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떤 팀원은 팀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워하며 희생이나 귀찮은 일을 겪어가면서까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가치는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팀을 희생하고 개인의 지위나 경력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는 개인의 위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들은 성장하지 못한 채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성취를 중시하는 직원들을 잃게 되며 팀원들이 개인 경력이나 개인 목표에만 관심을 갖게 만들어 쉽게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공동의 결과를 중시하는 팀은 팀원들이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며 개별적인 행동을 극소화하고 성공을 즐기며 개인의 목표나 관심을 팀의 이익에 결부시키고 분열을 피하며 실패를 아파하는 행동을 보인다.

결과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것도 팀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욕을 가지고 일하도록 돕는다. 애매모호한 목표가 아닌 분명한 성과에 대해 포상을 하는 것도 팀원들이 결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 리더의 역할은 팀의 결과를 중요시하는 분위기를 팀 내에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 팀의 리더는 주관적이어서는 안 되며 언제나 객관적이어야 한다. 조직의 목표 달성에 진정으로 기여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보상하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 책에서 지적하는 다섯 가지의 함정을 생각해 보며 우리 팀은 어느 자리에 빠져있는가를 되돌아보고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노력이 함께 있기를 기대한다. 물론 문화적인 차이로 말미암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보이는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 선교운동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나의 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한 책을 소개하였다.

dr.yongcho@gmail.com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 27강(신명기 27-34장) 모세의 3차 설교를 중심으로(1)

이제 모세의 3차 설교와 남은 사명의 마무리입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지나온 시간들, 사건들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가르치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제 모세는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를 앞세워 들어갈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합니다(신 27:1-3,8).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기억하여 행하라는 것입니다(신 27:10).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고 합니다(신 27:3).

###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어 그리심 산과 에발산에 세우고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해야 합니다. 그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신 27:15-25).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해야 합니다(신 27:26). 시내산에서 맺은 '피의 언약' 이후 출애굽 2세대와 또 다른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약속도 분명히 속히 깨지겠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모든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신 28:1,2).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자녀와 토지와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도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적군을 패하게 하시고 창고와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신 28:3-9). 또한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할 것이고 자녀와 가축과 토지의 소산이 풍성할 것이고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아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신 28:10-13).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해야만 이루어질 것입니다(신 28:14).

###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시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치시나 치유 받지 못할 것이고 집을 건축하나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심으나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소를 목전에서 잡으나 먹지 못할 것이고 나귀를 목전에서 빼앗겨도 찾지 못할 것이고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슬퍼해도 힘이 없을 것이고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으므로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신 28:15-34).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들이 세울 왕을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 가시리니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이들이 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이들에게 와서 이들을 따르고 이들에게 이르러 마침내 멸할 것인데 이 모든 저주가 이들과 이들의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될 것입니다(신 28:35-46).

또한 하나님은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까지도 내리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지라도 그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그들을 망하게 하시며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들을 만민 중에 흩으실 것인데 이들은 그곳에서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우상을 섬길 것이고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쉴 곳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떨게 하시고 눈을 쇠하게 하시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고 생명의 위험으로 주야로 두려워하며 마음의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소망없이 살다 하나님이 다시는 가지 말라 하신 애굽으로 끌려가되 종으로 팔리려 하나 아무도 살 자가 없어 종으로도 팔려가지 못할 것입니다(신 28:35-68).

hfamilyfa@gmail.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 (롬 14:1-5) 찬 278장

연약한 자를 용납함이 이웃 사랑의 첫 걸음입니다. 어떻게 용납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소자를 용납하신 사실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3) 소자를 용납하지 못하는 신자나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않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자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는 낮은 자리에서 통회하는 마음 위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 57:15) 둘째, 주께서 친히 소자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4) 소자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기에 연약한 자에 대해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주께 한 것이란 백보좌 심판의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마 25:45) 셋째, 마음의 확정이 중요합니다. (5) 무엇보다 약자를 용납하려면 나 자신의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됨을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웃의 약함을 용납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이 이로 시작됩니다. 그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신자입니다.

## 화 주를 위한 목적 (롬 14:5-11) 찬 474장

사람의 삶의 긍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충분히 즐기는 것이란 웨스트민스트 대요리문답처럼 그리스도인은 모든 방면에 그 목적을 적용해야 합니다. 어떤 방면이 그러합니까? 첫째, 시간마다 주를 위하여 중히 여겨야 합니다. (6) 화살같이 빠른 세월 속에 어느 하나도 헛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둘째, 먹는 일에도 주를 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건강을 주신 것은 자기를 위하여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라고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셋째, 생사가 오직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8)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욥처럼 주신 자도 주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주님이시니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려야합니다. 고로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진정 복된 자입니다.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킵시다.

## 수 심판대 앞에 사는 삶 (롬 14:9-12) 찬 182장

그리스도인의 산 제사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한대로 네 마음대로 행하되 심판받을 줄 알고 행하라(전 12:9)고 한 것처럼 언제나 심판대 앞에 선 자 곧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신 버리기까지 사랑한 그 은혜 때문에 먹으나 마시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알고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둘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심으로서 속죄의 완성을 증명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그 능력을 적용하는 길이 그분 앞에 사는 생활입니다. 셋째,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 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양심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길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 목 건덕 위주의 삶 (롬 14:13-16) 찬 422장

건덕이란 자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 곧,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삶의 원리로서 자기 백성이 죽음에서 살아난 근거입니다. 그의 덕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벧전 2:9) 어떤 덕을 세워야합니까? 첫째, 비판을 삼가야 합니다. (13) 인선을 위한 논단은 필요하되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비판 행위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형제를 존중해야합니다. (14) 어떤 수단이든 형제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경시함이 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15) 그리스도가 그 형제 곧, 교회를 자신의 생명의 담보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음식이나 돈이나 쾌락을 위한 목적에서 형제의 연약을 무시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무시함과 같은 일이기에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형제를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복을 빌며 섬겨야합니다. 그 때 아브라함의 복(창12:3)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 금 하나님 나라의 특징 (롬 14:17-19) 찬 420장

현재 성도가 아닌 자는 장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듯이 현재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장래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나라를 누리는가요? 첫째,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요 15:5)은 다른 말로 성령 안에 거하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목적, 수단, 그리고 필요를 통제하는 삶 곧, 나의 모든 것이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둘째, 그 나라는 세 가지 열매를 즐기는 삶입니다. (17) 의를 즐깁니다. 의란 하나님의 신분 곧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의 의가 모든 일에 세워짐을 성도는 소망하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며 그것을 즐깁니다. 둘째, 평강을 즐깁니다. 의가 그 나라의 기초와 기둥인 것처럼, 그 나라는 그가 다스리시기에 그 영력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일어나도 그 나라의 백성은 평강을 즐깁니다. 동시에 그 백성은 기쁨을 즐깁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의 기쁨보다 뼈 속의 기쁨 (시 51:8) 곧, 은근한 즐거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오늘도 그 나라를 성령 안에서 즐깁시다.

## 토 하나님의 사업 (롬 14:20-23) 찬 313장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 사업의 일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사업으로 비유한 말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에 충성할 수 있나요? 첫째,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일입니다. 음식으로 형제를 꺼리게 하는 것은 그의 사업을 무너지게하는 사탄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형제의 작은 연약을 내 몸에 채워 희생할 때 그 유익이 도리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창조의 아름다움보다 더 큰 아름다움이 주님의 교회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21) 둘째,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거창한 일보다 자신이 주 안에 거하는 일에 신실할 때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22) 셋째, 모든 일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믿음으로 해야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직분을 존귀하게 여깁시다.

교회음악 이야기(41)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 자유와 평화

리처드 로어(Richard Rohr 1943- )가 지난 2011년에 쓴 책 Fallowing Upward(위쪽으로 떨어지다)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래로 내려간 사람들만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임을 이해한다. 아래로 떨어진, 그것도 잘 떨어진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고 그 위를 오용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이 말을 떠올리며 작곡가 쥬세피 베르디(Giuseppe Fortunino Francesco Verdi, 1813 - 1901)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근대 오페라의 거목'이라는 호칭을 받으며 오늘날까지도 전세계 오페라 시장에서 그가 남긴 26개의 오페라 그리고 레퀴엠이 끊임없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곡가로 입문한 초기 그의 삶에서 가장 깊고 험난한 시련의 계곡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1839, 1840년, 연속해서 그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오페라 (오베르토 Oberto, 하루만의 임금님- Un Giorno di Regno)를 만들어 각각 무대에 올려 초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청중들의 반응은 싸늘하였고 결국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무참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깊은 나락에 빠지면서 자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이어지는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36년 결혼하여 그 이듬해에 낳은 아들과 아내를 차례로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의 연속은 베르디가 한때 작곡마저 단념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게했습니다. 깊은 실의 속에 두 해를 보낸 베르디는 1842년 당시 라 스칼라극장의 지배인으로 있던 바르톨로메 메렐리(Bartolomeo Merelli 1794-1879)의 집요한 설득으로 오페라 대본가 솔레라(Temistocle Solera, 1815-1878)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부코 왕(성경 속 느부갓네살)의 행적의 내용을 토대로 쓴 대본을 건네받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은 심정으로 오페라 대본을 접하게 된 베르디는 이것을 통해 의욕을 되찾아 작곡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하며 재기에 의욕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베르디가 이 오페라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민족주의 작곡가로 유명한 그는 대본의 내용이 당시 이탈리아의 정치적 상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란 확신이었습니다. 당시의 북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국민적인 애국 운동으로 온통 술렁거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민족의식과 자유의지의 열망이 베르디의 오페라 정신을 지배하던 중 "나부코"의 대본을 읽고 완전히 매혹당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오페라 작곡가로서 그는 두 개의 작품을 완전히 실패한 이후 재기를 다져야 하는 절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나부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작곡에 손을 대고 이 작품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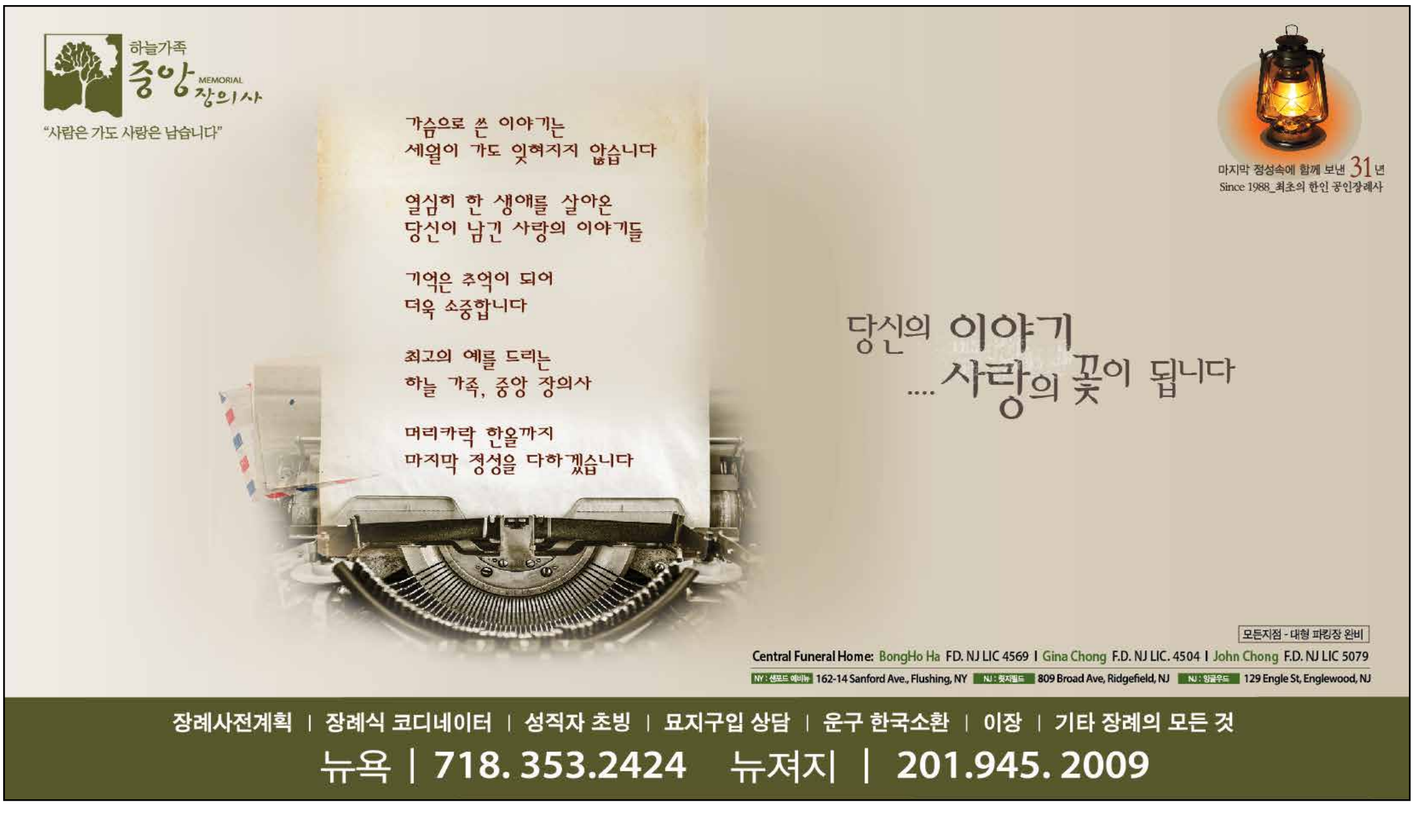
결국 베르디는 그의 세 번째 오페라 작품이 된 나부코(Nabucco)를 써서 1842년 3월 9일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극장에서 감격스러운 초연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수난, 그로 인한 고통과 환난, 이렇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함 속에 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민족의식과 신앙을 잃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의 강인한 결속력은 베르디 스스로 감동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스케일과 장대한 무대 규모를 마음껏 표현하면서 유대왕국의 멸망에 따른 나부코의 행적을 쫓는 그의 음악 정신은 결국 뜨거운 불꽃을 피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통해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거대한 불을 지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이 작품은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무려 67회나 연속 상연될 정도로 오페라 팬들을 열광시켰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후 베르디는 50여 년에 걸쳐 만들어진 23개의 모든 오페라 작품은 하나도 빠짐없이 대단한 인기를 독차지하며 오늘까지 전 세계의 오페라 시장에 주 레퍼토리로 연주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베르디가 근대 오페라의 거장이라는 호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오페라 중 3막에서 부르는 '노예들의 합창(Va Pensiero)은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오페라 합창곡입니다. 내용은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와 억압과 노역에 시달리는 히브리 노예들이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며 조국을 향해 부르는 노래를 소재로 하였습니다. 베르디는 이 합창곡으로 조국의 해방과 통일을 염원하는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곡의 내용, 그리고 당시 이탈리아의 상황은 우리 민족의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와 너무 유사한 역사를 표현하고 기억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중한 찬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에서 오늘날까지도 해마다 광복절을 전후해서 "자유와 평화"라는 제목으로 의역된 가사를 가지고 많이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C 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 - 1963)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저서에서 '고통은 영웅의 자질을 드러낼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놀라울 만큼 많은 이들이 그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라고 서술하며 책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감히 베르디는 루이스가 이야기한 "고통은 영웅의 자질을 드러낼 기회를 제공합니다."라는 말을 이룬, 그리고 리처드 로어가 이야기 한 아래로 내려간 사람들만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아래로 잘 떨어졌기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된 대표적인 음악가였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 영웅의 자질을 드러낼 기회"라고 자꾸 귓전에 메아리로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음성으로 들어보시지 않으렵니까? 그리고 누군가 혹시 아래로 떨어졌습니까?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 축복의 서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iyoon@wmu.edu



선교 편지

# 일본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늘 저희 선교 사역과 가정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시작된 2023년 여름 영어 성경캠프가 주님의 은혜와 많은 분의 기도로 31일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여름 캠프 중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여 참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금년도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환자가 계속 발생하기에 저희도 기도하며 깊은 주의와 예방 조치를 취하며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3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일본 국내에서 선생님을 모집해서 진행했지만, 올해는 해외에서 오셔서 진행된 사역이었기에 선교에 대한 영적 파워와 봉사의 정신과 프로그램의 충실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번에 오신 선교팀 중에는 3가정에서 8-10살의 5명의 자녀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었기에 저희도 특별히 배려해야 할 일들은 있었지만, 어른들과 똑같이 사역하는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에 함께 훈련을 받아서인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른들과 함께 기도와 큐티를 하고, 사역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고, 다음 날의 사역 준비와 청소 등도 열심히 잘 도와주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편안한 여행을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 어린 나이에 선교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는 영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에도 큰 도전이 되었다고 믿어집니다.

그들의 장래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셔서 열심히 수고하신 두 교회의 선교팀과 배후에서 간절히 기도하여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일본의 기독교 통계에 의하면 어른이 되어 교회에 가는 높은 비율은 어릴 적에 단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가보았다든지 미션 계통의 학교에 다녔던 분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하는 저희로서는 어느 분이든 당장 교회의 교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번 여름에 왔던 어린이들이 언젠가 어른이 되어서 일본 어느 교회에서라도 교인이 될 수 있다면, 선교사인 저희는 먼 미래를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기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입장입니다.

매년 캠프의 마지막 날은 참가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올해에도 예외 없이 참가했던 아이들이 거의 손을 든 상태입니다. 그중에는 깊은 의미도 모르고 손을 든 아이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언젠가 꼭 지켜지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곧 맹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21일 월요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선교팀이 오셨을 때 맹장이 발견되었지만 선교 사역 중에 도저히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그동안 약으로 버텼습니다. 수술이 잘 되고 후유증이 없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녀 세라는 미국의 대학원을 준비 중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때에 학교보다 교회를 지켜준 것을 부모로서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미안할 뿐입니다.

둘째 레이처는 필라델피아 약대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기에 그리고 할머니댁 근처라는 것도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식 때는 졸업생을 대표해서 Honor award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는 그 순간 그동안 쌓였던 힘들었던 여러 가지가 한순간 내려지는 기쁨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두 자녀가 교회에서도 전도사 같은 역할을 잘 했었고 집에서도 늘 큰 힘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둘다 떠나기에 부모로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9월에 7년의 암 검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조로운 상황입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늘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 선교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한 분 한 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1. 여름 캠프에 참여한 가족들이 꼭 교회와 연결되도록
2. 교회와 선교원이 영적, 양적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3. 두 자녀의 신앙생활과 공부를 위해서
4. 선교원을 도울 선생님이 꼭 확보되도록
5. 기도와 재정의 후원이 더 많아지도록

2023년 8월 강민숙 선교사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파푸아뉴기니

▲ 종족명
왐파트 종족

▲ 인구
약 15,000명

▲ 종교
민속 종교, 루터교 및 군소 기독교회

▲ 기타
공항, 항만, 국도의 분기점으로 교통 요충지

▲ 프로젝트 소개
자생력 있는 토착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현지 교회 중심의 주인의식 배양 및 주체적 역량 강화를 사역 원리로 삼고 신구약 전서 번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현지 교회의 주체적 의사 결정 및 운영 중심으로 사역자 선발, 훈련 및 재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 프로젝트 진행
신구약 1차 초역과 룻기 요나서 빌레몬서 자문위원 점검을 마쳤고, 다섯 명의 번역자들이 번역 자문위원 훈련과 정중에 있다. 96곡의 왐파르 찬송 녹음을 마쳤다.

▲ 기도제목
1. 번역 자문위원 훈련생들이 훈련을 잘 마치고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2. 왐파르 모든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되고 변화되어 부흥의 원천이 되고 그 불꽃이 파푸아뉴기니 전체로 퍼져나가도록
3. 왐파르 번역자들과 성경 활용 사역자들의 온전한 믿음 성장과 헌신을 위하여 좋은 문해사역자들이 일어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조/각/글

송찬우 목사
(시애틀임마누엘장로교회)

## 마우이섬의 빨간 집

오늘 아침에 제게 날아온 뉴스는 "빨간 마우이 집에 살고 있는 집 주인 밀리킨 부부는 그 집은 100% 목재로 지어진 100년 된 집이라고 밝혔다"고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단 밀리킨 부부는 2021년 집을 산 뒤에 지붕을 금속으로 바꾸고, 흰 개미들을 차단하고 훼손된 부분을 복원할 목적으로 집 주변에 있던 초목들을 말끔히 제거하고, 자갈과 돌멩이들로 둘렀는데, 그것이 불에 강한 주택이 된 걸로 보인다고 이야기 합니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이였다는 본래의 뉴스와는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러나 현재의 집주인이 자기 집을 나름 잘 관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 '행복한 삶'이란 관리에 달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를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셀 수 없는 많은 조건 가운데 하나 둘만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가 바라는 그 삶의 행복은 삐거덕거립니다. 그리고 그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을 빼앗아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삶의 행복을 제대로 맛보고 누리려고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8)

이 말씀에서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을 저는 "자신을 관리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늘 생각하고 받습니다.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 이 시간 제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히 10:22-25)

chansong_hase@hotmail.com

## 신앙 에세이

류응렬 목사
(와싱톤중앙장로교회)

# 그곳에 진우가 있다

신학대학원생 시절, 방학이 되면 낙도와 오지로 선교활동을 다녔습니다. 일 년에 두 번은 꼭 다녀온 곳이 강원도 삼척군 신기면 대이리 라는 마을입니다. 요즘은 환선굴이 개발이 되어 하루에도 많은 차량이 오고 가지만 1995년도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하루에 여섯 번 다니는 버스가 전부였습니다. 누가 몇 시에 타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 사람이 기다리지 않으면 친절한 기사는 경적을 울리곤 했습니다. 대이리에는 21 가정이 살고 있고 조상대대로 이곳에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마을에 선교를 가면 늘 머무는 집이 있습니다. 마을 중간에 개울이 흐르고 '덕촌'이라는 간판을 붙여 놓은 집, 김진우라는 형제가 살고있는 집입니다. 참 해맑은 미소를 담은 형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근육 무기력증을 앓기 시작해서 중학교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한참 꿈으로 자라나는 청소년 시기에 점점 약해져 가는 몸으로 결국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옆 방으로 이동하는 것이 마치 강을 건너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비관하고, 내일을 그려볼 수 없는 아픔을 삼키며 살았던 진우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도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이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형제의 스토리를 듣고 저는 해마다 여름과 겨울이면 선교팀과 함께 그의 집에 방문해서 말씀을 나누고 온 마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우 형제는 그렇게 신앙으로 자라갔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시를 써서 아름다운 삶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진우 형제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2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지나간 편지를 정리하다가 진우 형제에게 보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2003년 1월17일 당시 진우 형제가 많이 힘들어 할 때 제가 유학했던 마지막 해에 보낸 글이었습니다.

"그는 친구가 참 많은 사람이다. 봄이면 파릇한 풀 향을 실어 날으는 봄바람이랑 여름이면 긴 태양의 등살에 풀 죽은 호박덩굴이 온몸을 풀고 가을날 여치와 귀뚜라미 온 밤 울고 나면 모두 떠난 자리에 여전히 창가를 두드리며 찾아오는 겨울바람, 그는 참 친구가 많은 사람이다. 난 그의 친구인 것이 참 좋다. 때로 푸른 하늘 한번 차분히 쳐다보지 못하고 지나는 날, 사방에 핀 꽃을 향해 걸음 한번 멈추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빛처럼 떠오르는 그의 환한 얼굴을 생각하거나 먼 이국땅에서 무거운 가방을 메고 도서관을 나설 때 문득 떠오르는 그를 그려보면 달님은 따스한 빛으로 그의 모습을 비춰준다. 사랑하는 진우 형제, 당신은 소망을 품은 한 마리 새입니다."

오늘 긴 세월 흘러 진우 형제 소식을 알아본 후 마음 깊은 아픔의 빗줄기가 흘렀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긴 형제. 많은 아픔과 눈물로 걸어온 삶이지만 하늘 같은 미소로 살아간 형제, 그의 삶을 그려보면서 가장 낮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란 때론 아픔도 깊지만, 한없이 경이롭고 매 순간 고마움으로 넘칩니다.

preachchrist@kcpc.org

# 게으른 건 쉬는 게 아니다

쉼은 감사함으로 기쁘게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쉼의 선물을 남용하도록 유혹합니다. 애초에 의도한 대로 쉼을 누리지 못하고, 방종과 게으름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생산적인 하루를 마치고 보는 영화 한 편과 아무런 목적 없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의 차이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우리는 일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부르심에 충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는 어떤 쉼을 누리느냐와 직결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도 게으름의 유혹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나는 꽤 바쁜 삶을 산다고 자부합니다. 아이들을 홈스쿨링하고, 대학원에 다니고, 또 파트타임 작가로도 일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게으르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나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텔레비전에 빠져서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스크롤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는 바른 쉼과 게으름의 차이를 분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네 가지 원칙입니다.

**원칙 1: 쉼에는 리듬이 있다.**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써, 피조물이라는 천에 안식이라는 선물을 무늬로 짜 넣으셨습니다(창 2:2-3).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창조주께서 먼저 쉬셨기 때문입니다(출 20:8-10). 안식일의 쉼은 하나님을 본받는 습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선물이기도 합니다(출 16:29; 막 2:27). 안식일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땀 흘리는 수고에서 잠시 떨어져서 마음을 재정렬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유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낮이 밤으로 바뀌면 우리는 휴식이 삶의 리듬이 되어야 함을 상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잠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음식과 친교가 필요합니다. 일에서 벗어나 함께 빵을 떼는 것은 몸과 영혼에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리듬입니다.

하나님은 작업 관리자가 아닙니다. 또 끊임없이 해야 할 일로만 구성된 게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결코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그리고 서로를 즐기도록 만드셨습니다.

**원칙 2: 쉼은 활력을 주어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소셜 미디어를 스크롤하거나, 일을 하는 중에 중간중간 텔레비전 쇼를 보면서 활력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날이면 나는 어김없이 후회가 뒤따릅니다. 차라리 푹 쉬거나 아니면 일에 몰두할 걸 하는 아쉬움을 떨치기 힘듭니다.

우리가 "쉼"이라고 간주한 무엇이 동기 부여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영감을 느끼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시 일하고 싶은 의욕을 북돋는 것도 아니라면, 사실 우리는 쉰다는 핑계를 대며 게으름에 굴복한 것입니다. 게으름은 그냥 그대로 두면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쉼은 활력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쉼이 필요한 영역이 뇌이건 몸이건, 올바른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위해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하다가 지치면 잠깐 나와서 휴식을 취합니다. 시원한 물을 마시고 또 팀원들과 잡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러한 쉼은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어 다시 경기에서 열심히 뛰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시원한 물 대신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의 플레이는 느리고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휴식 시간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힘을 공급해서 일과 책임을 다하도록 돕는 쉼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저마다 똑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 세부 사항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가장 즐기는 쉼은 책을 읽고 혼자 누리는 긴 산책입니다. 그게 정원 가꾸기, 카드놀이, 친구와 나누는 커피 수다, 또는 낱말 퍼즐 풀기인 사람도 있습니다. 영화나 비디오 게임도 적당히만 즐기면 얼마든지 활력을 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 3: 쉼은 방향을 재설정하도록 한다.**

쉼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중요한 열매는 마음의 방향을 재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에 빠지면 영혼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성령에 덜 민감해지고, 유혹에 더 무감각해집니다. 게으름은 우리를 죄로 유인하는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게으름은 하나님께 냉담해지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쉼은 우리의 방향을 재설정합니다. 일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님을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생산성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일의 속도를 줄이고 하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탐구하면서 하나님과 교감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든지 일을 잠시 옆으로 제쳐둘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추억을 만들고 애초에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형제자매와 함께 웃고 떠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원칙 4: 쉼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게으름이 자신만을 위하는 방종이라면, 쉼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즐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에 달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생각하십시오. 게으름은 이기심을 낳습니다. 반면에 쉼은 다시 일어나 봉사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게으름은 책임을 미루고 회피하게 만들지만, 쉼은 다시금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력을 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쉼의 은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마음과 행위조차도 항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종종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의 상태를 더 잘 알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의 속도를 좀 늦추고 쉼을 가져야 하는지, 아니면 게으름과 나태를 회개해야 하는지 더 정확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by Amy DiMarcangelo, TGC

## 게으름은 그냥 그대로 두면 끊임없이 지속된다
## 쉼은 활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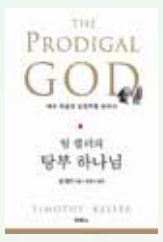
#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드,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3년 10월 31일(오후 5시)** (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 씩의 부상이 전달 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


탕부 하나님
팀 켈러
두란노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쇠얀 케고르, 오석환 역주
카리스 아카데미

묵상과 기도
김경은
성서유니온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정한욱
깊은 문고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
손성찬
두란노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아픔
하재성
생명의 말씀사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회장 이영선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